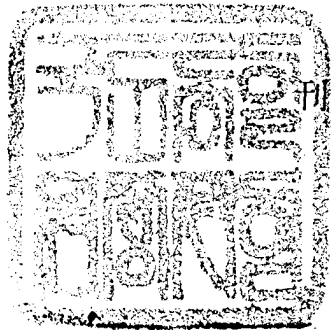


3842
349

周邊 四大國의 對韓半島 政策



刊行責任：金 容 在
(調査研究室 補佐官)

9/2/52

~~주변대항~~
 한반도반남
 주변4국대항반남정책
 미국대항반남정책
 소련 " "
 중국 " "
 일본 " "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發刊에 즈음하여

이 冊子는 日本 環太平洋問題研究所에서 發刊한 84年度版 「韓國·北朝鮮總覽」중에서 美·日·中·蘇 周邊4強國의 對 韓半島政策에 관한 部分을 翻譯한 것이다.

最近 나카소네 日本首相의 中共訪問(84.3)과 레이건 美大統領의 中共訪問(84.4) 등으로 韓半島 統一問題에 관한 周邊國들의 立場이 보다 融通性있게 調整되고 있는 가운데 韓·中共間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와 接觸의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다. 또한 北韓이 소위 「3者會談」을 提議해 온 때를 前後하여 「4者會談」, 「6者會談」 등이 舉論되고 있고, 美·日·中·蘇가 각기 韓半島 問題에 대해 깊은 관심을 表明하고 있음에 따라 南北韓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周邊環境에 대한 整理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러한 時點에서 이 冊子는 最近 韓半島 周邊情勢의 흐름을 把握하고 整理하는데 크게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아무쪼록 韓半島 統一問題와 韓半島 周邊環境의 變化에 대해 깊은 關心을 갖고 研究하시는 분들에게 有用한 參考資料로써 活用되기 바란다.

1984. 4.

目 次

I.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1. 韓半島에 대한 레이건政權의 戰略認識	5
2. 美國에 있어서의 韓國의 重要性	11
3. 韓半島를 둘러싼 外交	16
4. 韓·美 經濟關係	19
5. 새로운 問題들	22

II.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1. 序 言	25
2. 最近 蘇聯의 韓半島政策	26
3. 蘇聯의 韓半島政策 展望	31
4. 結 論	49

III.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1.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基本立場	50
2. 「韓·日 經濟協力」에 대한 日本의 政策	54
3. 韓國의 「安保經濟」論	56
4. 「防衛費의 代行」을 拒否한 日本	61
5. 中曾根政權의 對韓半島政策	64

IV.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1. 概況	69
2. 第2次大戰後의 中共・北韓關係	71
3. 中共과 韓國	82
4. 1982年 以後의 中共・北韓關係	85
5. 1982年 以後의 中共・韓國關係	91

I.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1. 韓半島에 대한 레이건政權의 戰略認識

레이건政權은 前任者와는 다른 戰略認識을 가지고 이에 臨하였다.

보다 斷乎한 外交政策을 展開하고, 敵性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美國의 脆弱點으로 看做되어 오던 事項에 終止符를 찍겠다는 것을 레이건大統領은 宣誓하였다.

그는 또 主要目標를 國外兵力을 包含한 美國軍事力の 強化에 두었다.

蘇聯은 이 새 政權으로서는 그 政策의 第1次 標的이 되었다. 레이건政權은 蘇聯과의 軍事力 밸런스를 美國 優位의 狀態로 恢復시키고 또 世界의 特定地域에 대한 浸透를 劃策하는 蘇聯에 대하여 果敢히 挑戰한다는 것을 소리 높여 主張한 것이다.

蘇聯의 東아세아 地域에서의 空·海軍力 增強과 印度支那 半島에의 橋頭堡 確保 등에 대한 憂慮를 레이건政權은 서슴없이 國內外에 宣傳하였다.

카터政權이 마지막 2年동안에 着手하기 시작했던 아세아에 대한 美國의 安保上の 役割에 관한 再闡明을 다시 促進하게 되었다. 西太平洋地域에서 美國軍事力の 近代화가 急

先務로 되었다.

美國은 또 아세아의 同盟諸國에 대한 條約上의 保障을 再 確認하고 몇몇 나라에는 安全保障援助計劃에 立脚하여 武器 販賣를 增大시켰다.

레이건政權은 나아가 東아세아 諸國과의 緩慢한 聯合을 形成하여 모스크바에 對抗하려 하였다. 即 東아세아 諸國과의 安全保障 協力の 擴大와 이들 諸國의 防衛力の 增強努力에 대한 美國의 支援을 내걸었다.

日本은 이러한 어푸로우취의 主要한 標的이 되었다. 레이건政權은 日本列島 및 그 東西에 널리 뻗어있는 北西太平洋地域의 防衛責任을 日本이 負擔하도록 壓力을 넣었다. 워싱턴은 日本에 대해 커진 防衛責任에 따른 空·海軍의 增強을 要請하였다.

또 美國은 ASEAN의 數個國에 대하여 安全保障上의 支援을 強化하였다. 그 目的은 이들 諸國에게 協力해 줌으로써 間接적으로 太平洋과 印度洋을 잇는 重要한 海峽을 防衛하는데에 있었다.

이러한 워싱턴의 努力의 背景에는 페르샤灣·이란地域에서의 美國의 새로운 防衛公約이 있었다. 페르샤灣에서의 어떠한 美國의 軍事介入도 支援한다는 重大한 役割을 워싱턴은 太平洋地域의 美軍에게 賦與한 것이다.

이것은 美國太平洋軍司令部에 새로운 責任을 賦與함과 동

시에 美國이 太平洋으로부터 페르샤灣으로 軍事力을 再配置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西太平洋地域의 安全保障에 대한 새로운 疑問을 惹起시켰다. 레이건政權의 一部에서는 어떠한 地域의 安全保障도 犧牲시키는 일이 없이 多様な 公約에 對處할 수 있는 柔軟性을, 그리고 友邦國과 同盟國들에 依한 防衛力의 增強은 美國에게 有益한 것으로 보고 있다.

韓半島는 이러한 레이건政權의 認識속에서 特殊한 地位를 占해 오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堅固한 北韓의 軍事能力과 南北韓間의 明白한 軍事的 不均衡으로 인해 레이건政權은 韓半島를 危險地帶로 看做하고 있다.

全體적인 對蘇 對立속에서 모스크바가 더욱 軍事的인 壓力을 美國에 가하기 위하여 北韓을 使嗾하여 한국을 攻擊토록 할지도 모른다고 워싱턴은 警告를 發할 程度였다.

美國의 情報機關은 1983年初 北韓의 總兵力을 78萬名으로 보았다. 地上兵力은 적어도 40個師團과 10萬에 달하는 特殊軍團으로 編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總地上兵力은 約 70萬名이다.

北韓 地上兵力의 兵器裝備는 機甲力과 火力에 集中되어 있다. 1970年代 初期以來 北韓은 戰車와 火炮를 包含한 모든 地上兵器를 自體로 生産할 수 있는 軍需工場의 擴充에 힘써 왔다. 北韓은 GNP의 15%~20%를 軍事費에 充當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地上兵器의 主要內譯은 다음과 같다.

- 戰車·突擊砲 3,000 문以上
 - 火 砲 4,000 문以上
- (이 中 3 分의 1 은 自走砲)
- 機甲兵力 輸送車 1,000 대
 - 多連發로켓트발사포 2,000 문
 - 對戰車砲 1,500 문
 - 高射砲 8,000 문

한편 북한의 空軍은 그다지 近代的이라고는 할 수 없다. 約 700 臺의 戰鬥機를 保有하고 있긴 하지만 그중 半數가 舊式機이다. 다만 注目할 것은 約 230 臺에 달하는 輕輸送機로써 特殊部隊의 韓國侵攻時에 使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海軍의 構成은 潛水艦이 19 隻, 各種 輕攻擊·沿岸 哨戒艇 350 隻, 高速上陸用 舟艇(特殊部隊用) 100 隻으로 推定된다.

北韓의 兵力은 非武裝地帶(DMZ)에서 2~3 마일 以內의 潛在的 攻擊地點에 展開되어 있으며 그 約 半數는 地上部隊로 되어 있다.

美國 專門家들은 거의 事前準備를 하지 않아도 북한이 南으로 侵攻을 開始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戰略은 非武裝地帶의 어느 一點 또는 二點에 砲兵部隊, 機甲部隊, 步兵部隊의 總力を 集結시켜서 DMZ의 南

方에 位置하고 있는 韓國軍을 突破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特殊部隊는 海·空軍의 지원을 받아 韓國 內部에 浸透하여 空軍基地 司令센터와 彈藥庫를 無力化시키는데 그 目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主要目標은 두가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非武裝地帶의 西쪽에 集中配置되어 서울에의 潛在的 侵攻루트를 防衛하고 있는 韓國軍 地上兵力을 崩壞시키는 것과 美國이 大量의 兵力을 한국에 投入하기 以前에 서울을 奪取하는 일이다.

韓國陸軍의 總兵力은 1982 年에 52 萬名이며, 21 個步兵師團과 砲兵大隊 및 戰車大隊로 編成되어 있다. 火砲와 對戰車兵器가 重裝備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다. 155 밀리 榴彈砲 2 千門과 大量의 托우對戰車兵器의 補充으로 火砲는 最近 5 年동안에 強化되었다. 새 榴彈砲의 大部分은 韓國內에서 生産된 것이다. 機甲部隊는 舊型의 美國製 戰車 1,000 臺로 되어 있는데 그 大部分은 一新되어 性能이 向上되었다.

韓國의 空軍은 F-5 邀擊機 260 臺, 邀擊, 對地 兩用의 F-5 戰鬪機 60 臺 그리고 F-4 팬텀戰鬪機 3 個 飛行中隊 등으로 編成되어 있다. 또 머지않아 F-16 戰鬪機 36 臺와 國産의 F-5 戰鬪機 70 臺도 追加配置될 豫定이다.

1980 年代 初에 있어서의 美國과 韓國의 對北韓 戰略은 抑止의 概念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 目的은 韓國侵攻은 결

코 成功하지 못하며, 오히려 北韓 自身에 대한 損害가 되어 되돌아 갈 것이라고 平壤이 생각케 하는데 있다.

最大의 抑止는 北韓의 對南侵攻이 있으면 駐韓美軍이 즉각 對應하고 또 美國은 大量의 增援을 韓國에 輸送 投入할 것이라는 것을 北韓이 믿을만한 狀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駐韓美軍을 存續시키며 또 美第2步兵師團을 서울과 DMZ 사이에 그대로 못박아 둔다는 레이건政權의 決定理由로도 된 것이다.

火力과 人力의 面에서 北韓이 優位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美國과 韓國은 前方 防衛戰略을 堅持해 왔다. 일단 後退했다가 反擊한다는 從來의 戰略이 首都 서울을 危險속에 露呈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韓國側의 憂慮때문에 韓·美 兩國은 1973年에 이 前方 防衛戰略을 採擇한 것이다. 前方防衛는 後退를 하지 않고 非武裝地帶 바로 南쪽에 서 敵을 박살내어 休戰線에서 25 마일 南方에 位置하고 있는 서울에까지 北韓軍이 到達하지 못하도록 沮止하는데 그 目標를 두고 있다.

이 戰略의 要點은 美國과 韓國의 戰術空軍이 가지는 大量의 火力과 淸島에 配置되어 있는 B-52 爆擊機와 韓國의 火砲, 對機甲兵器에 달려 있다.

이 戰略이 設定된 以來로 韓·美 兩國의 司令官들의 任務는 韓國의 能力을 提高시켜서 前方을 防衛하는 地上兵力

이 잘 機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있었다. 韓國은 서울 北方으로부터의 假想 侵入루트에 따라(그 大部分은 山頂) 防衛據點 몇개를 設置하였다. 이 要塞들은 만약 侵略이 있으면 對戰車 兵器와 火炮에 의한 攻擊과 함께 空中으로부터의 集中攻擊(B-52의 集中爆擊을 包含)을 敵部隊와 機甲兵器에 퍼붓게 될 比較的 좁은 侵入루트에다 다시 여기에 방벽을 設置할 것을 計劃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이 非武裝地帶를 따라 第1의 堡壘線을 構築했는데 防衛據點은 DMZ의 南方 2~5 마일에 位置하는 곳, 소위 FEBA~ALPHA 라인에 全적으로 集中해 있다. 前方 防衛戰略은 이 라인을 維持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2. 美國에 있어서의 韓國의 重要性

레이건政權의 前任者와 다른 戰略認識은 한국에 대한 政策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레이건政權의 對韓政策의 主要目標은 다음 點들에 있다.

- ① 相互信賴에 바탕을 둔 同盟關係의 回復
- ② 바람직스럽지 못한 韓國·北韓間의 軍事的 不均衡의 是正
- ③ 韓國에 대한 對外經濟 支援의 擴大促進
- ④ 全斗煥政府 支持라는 脈絡속에서 韓國에 있어서의 人

權蹂躪의 防止

⑤ 南北韓間 및 4大國(美·蘇·中·日)間的 安定된 關係의 維持

레이건은 政權을 擔當하자마자 즉각 새로운 어프로우치에着手하였다. 全斗煥大統領을 레이건政權의 첫 外國元首賓客으로서 워싱턴에 招待한 것이다. 全斗煥大統領의 訪美는 美國政府가 全斗煥政府를 認知했음을 象徵하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다시 駐韓美軍의 撤收를 中止한다고 發表함으로써 前任者의 政策을 否定해 보였다. 한국과의 政府間 協議의 全面的 再開도 레이건大統領은 이때 밝혔다. 거기에는 카터政權이 한국의 人權問題에 壓力을 주기 위하여 延期해 두었던 安全保障 關係의 協議會도 包含되어 있었다.

全斗煥大統領의 訪美와 關聯하여 美國은 그 安全保障政策에 새로운 議題를 提起하는 세가지 措置를 分明히 하였다.

먼저 國防省은 美國이 한국에 F-16 戰鬥機를 販賣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表明하였다.

이 販賣는 數年동안 考慮되어 오던 것인데 카터前政權은 最終承認을 保留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 發表와 同時에 駐韓美軍司令部는 1982年 3月부터 韓國에 A-10 近接支援機의 飛行中隊를 配置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또 駐韓美軍司令部는 F-4 戰鬥機의 飛行中隊에 代替하여 最新型의 F-16 戰鬥機를 配置할 用意가 있

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

세번째의 聲明은 安全保障 援助에 관한 것이었다. 레이건 政權은 한국에 대한 安全保障 援助를 1981 會計年度의 1 億 6,000 萬弗에서, 1982 會計年度에는 1 億 6,800 萬弗로 增額하는데 同意하였다. 增加總額은 800 萬弗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1970 年代 中半期 以來로 減少一路에 있던 對韓國 安全保障 援助의 下落傾向에 레이건 政權은 이를 停止시키는 意思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1981 年 4 月에는 第 13 次 韓·美 安保協議會가 열려 이런 公約들이 모두 再確認되었다. 共同聲明은 한국의 安全保障이 「美國의 安全保障에도 必須的이다」는 것을 分明히 하였다.

그리고 와인버거 國防長官은 「1954 年の 韓·美 相互防衛條約에 基礎하여 한국에 대한 武力侵略을 韓·美 兩國에 대한 共同的 威脅으로 認識하고 이를 擊退하기 위해 迅速하고 效果的인 支援을 提供한다는 美國의 確固한 公約을 再闡明」한 것이다.

1983 年 初까지 美國은 상당한 兵力의 近代化를 韓國에서 遂行하였다.

駐韓美空軍의 F-4 戰鬥機는 F-16 戰鬥機 2 個 飛行中隊(48 臺)로 代替되었다. 1983 年 10 月까지에는 3 번째의 飛行中隊도 配置되기로 되어 있다. 또 沖繩에 있는 F-4 戰鬥機 3 個 飛行中隊도 이미 F-15 戰鬥機로 바뀌었다. 이

F - 15 部隊의 主要任務는 韓半島 有事時에 한국의 美空軍 部隊를 支援 및 補強하는데 있다.

美國은 또 1985 年 初에는 日本에 F - 16 戰鬥機 2 個中 隊를 配置할 方針을 밝혔다. 이것은 一定한 條件下에서 韓 半島 有事時에 成果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

1983 年 初까지 駐韓美空軍은 A - 10 地上支援機 1 個中隊 (24 臺)의 導入을 完了하였다.

地上兵力의 面에서 보면 駐韓美第 2 步兵師團은 M198 155 밀리 牽引榴彈砲를 配置하였다. 第 2 步兵師團은 最新 火砲를 導入한 最初의 美軍의 在外部隊가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레이건政權은 1983 年 1 月 60 日間の 戰鬥를 支 援할 수 있을 程度의 한국에서의 彈藥의 備蓄을 增加할 計 劃을 밝혔다.

한국에 대한 安全保障 援助의 增加와 한국의 軍事力 增 強을 위한 努力은 駐韓美軍의 強化에 비하면 훨씬 緩慢한 形態로 進行되었다. 最大의 進展은 韓國空軍의 強化에서 볼 수 있었다.

韓國은 F - 16 戰鬥機의 購入을 推進하며 F - 5 E 및 F - 5 F 邀擊機의 共同生産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共同生産 決 定の 目的은 F - 5 約 68 臺의 生産에 있다.

改善을 보게 된 또 하나의 分野는 한국의 防衛産業에 의

한 美國製 155 밀리 榴彈砲의 增産이다.

1982 年 末에 韓國軍은 約 2,000 門의 155 밀리 榴彈砲를 保有하기에 이르렀다. 155 밀리砲는 舊型의 105 밀리砲에 비하여 보다 長距離의 射程距離에 破壞力도 뛰어났다.

한국은 또 對戰車 미사일을 搭載한 휴즈MD - 500 헬리콥터의 生産에도 着手하였다.

레이건政權은 1983 會計年度에 있어서의 한국에의 對外軍事販賣 (FMS) 借款의 增額을 놓고 美國議會의 壓力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1970 年代 後半에 있어서 한국은 FMS 削減의 안성맞춤의 目標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FMS 借款은 1978 會計年度의 2 億 7,500 萬弗에서 1980 會計年度에는 1 億 2,900 萬弗로 減少돼 있었다. 議會가 承認한 것은 1981 會計年度에 1 億 6,000 萬弗, 1982 會計年度에 1 億 6,600 萬弗이었다.

議會는 1983 會計年度에 한국에의 FMS 借款을 1 億 4,000 萬弗로 削減하였다. 레이건政權은 이에 대하여 700 萬弗의 追加를 要請하였다. 議會가 그것을 承認하게 되면 總額 2 億 1,000 萬弗이 된다. (실제로는 4,000 萬弗만의 追加供與가 認定되어 1983 會計年度의 對韓 FMS 借款은 1 億 8,000 萬弗로 되었다) 레이건政權은 1984 會計年度의 對韓 FMS 借款에는 2 億 3,000 萬弗을 要請하고 있다.

레이건政權은 또 FMS의 借款條件의 緩和를 한국에 約束하였다. 1983年 2月 서울을 訪問했을 때 솔츠國務長官은 美國政府가 償還据置期間을 現行의 3年에서 5年으로 하고, 또 償還期間을 7年에서 9年으로 延長할 用意가 있음을 韓國側에 傳했던 것이다. 그는 또 레이건政權이 1984會計年度의 對韓 FMS 借款을 償還据置期間 10年에 償還期間을 20年으로 延長할 것을 議會에 대해 要請하겠다는 것을 確約하였다.

3. 韓半島를 둘러싼 外交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指向한 外交는 1973年에 南北對話가 決裂된 以來로 中斷의 狀態에 빠져 있다. 서울과 平壤 사이에서는 아무런 實質的인 關係改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 4大國들도 모두 各者가 南北韓에 대한 政策을 變更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日本은 北韓에 대하여 貿易은 하고 있지만 兩者 사이에 國交는 樹立되어 있지 않다.

美國도 北韓과의 公式接觸이나 貿易을 여전히 금하고 있다. 中·蘇 兩國은 北韓에 대하여 強力한 外交的 支援을 하고(분명히 軍事的으로는 平壤을 抑制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接觸은 겨우 눈에 뜨일 程度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停頓狀態에 관해서는 몇가지의 說明이 可能하겠다. 첫째, 北韓은 韓國政府의 合法性을 전혀 認定하지 않고, 그

打倒를 主張하면서 또 저들의 統一方案外에는 南韓과는 交涉할 用意가 없다는 것을 表明해 오고 있다. 이러한 提案 속에서 強調되는 것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包含한 軍事問題에 관한 決定과 韓國內에서의 反共政策의 撤廢 그리고 聯邦制의 實施에 관한 것 등이다.

그리고 다시 平壤側은 美國에 대하여 平和協定에 관한 交涉을 提議하고 있으나 韓國의 參加는 認定할 수 없다고 한다. 北韓은 1983年 봄에도 이 提案을 反復하면서 에집트의 무바라크大統領에게 그 뜻을 워싱턴에 傳達해 줄 것을 依賴하였다. 北韓은 또 애써 中·蘇 兩國을 韓國으로부터 멀리 떼어내려 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 두가지 要因이 이같은 狀況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0年 韓國에서의 政治的 混亂은, 中·蘇 兩國이 韓國에의 接觸을 摸索하고 있던 時期에 있었다. 이러한 韓國의 政治情勢와 混亂의 餘波가 不確實한 것이었고 北韓으로부터의 壓力도 이에 곁들어져 中·蘇 兩國은 서울에의 接近을 躊躇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美國政府는 中共과의 國交樹立後의 會談에서 韓半島問題를 主된 爭點으로써 提起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現在까지 변함이 없다. 中共이 韓國과 秘密裡에 貿易을 하면서 政府間의 接觸을 企圖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워싱

턴은 위와 같은 어푸로우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中共의 理解를 얻어 4個國間的 停頓을 打開할 機會를 逸失한 것이다.

中共의 對韓接觸에는 兩國의 經濟關係의 秘密會談과 秘密貿易이 包含되어 있었다. 韓·中共貿易은 1981年에 推定 1億弗~4億弗의 피이크에 達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中共은 政策을 轉換하여 韓國과의 貿易과 接觸을 凍結하는 方向으로 움직였다. 이와 같은 北京의 行動은 北韓의 壓力에 의한 것이지만, 어느 程度는 對美關係 惡化의 反映도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中共은 또 1982年에 北韓에 대하여 武器와 石油의 供與를 增大시켰다.

그러나 어쨌든, 美國 高位層들은 中共의 북한에 대한 影響力이 韓半島의 安定에 寄與하고 있다고 主張해 오고 있다. 그러한 理由로 해서 카터·레이건 兩政權은 中共에 대해 對韓政策의 變更을 要求하는데는 消極的이었다. 솔츠國務長官은 1983年 2月 北京訪問때, 韓半島問題를 提起하지 않았다는 것을 韓國側에 전하였다. 그러나 南北雙方이 한결같이 軍事力을 增強시켜 가고 있다는 觀點에서 長期에 걸친 外交關係의 凍結이 과연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될지가 문제일 것이다.

이 數年間的 外交的 進展속에서 가장 注目되는 것은 韓

· 日 兩國間에 새로운 經濟協定 合意가 이루어진 事實이다. 1981 年에 韓國은 日本에 대하여 經濟開發 5 個年計劃 (1982 年~1986 年)을 위한 60 億弗에 達하는 援助를 要求하였다. 交渉은 2 年에 걸쳐 難航이었다. 日本政府는 이러한 援助가 日本의 防衛에 寄與하며 韓國의 무거운 防衛負擔을 덜어줄 수 있다는 韓國政府의 主張을 一蹴하였다. 1982 年에 와서, 韓國은 그 要求額을 40 億弗로 修正하였지만, 때마침 日本의 教科書問題가 發生하기도 하여 交渉은 妥結되지 못했다.

새로운 政權의 座에 오른 中曾根康弘首相은 1982 年 訪韓을 통해 日本의 首相으로서는 前例가 없는 友好的 姿勢를 보임으로써 韓·日交渉을 解決로 이끌어 나갔다. 中曾根首相과 全斗煥大統領은 政府借款과 輸銀融資로 된 總額 40 億弗의 援助 보따리에 合意를 본 것이다.

韓·日交渉의 妥結은 美國外交의 勝利를 意味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레이건 政權은 直接 韓·日 兩國間の 交渉에는 關與하지는 않았지만, 蘇聯이나 그밖의 共產主義 諸國으로부터 安全을 威脅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經濟援助를 增加하도록 日本에 壓力을 가한 것이다.

4. 韓·美 經濟關係

韓國은 1970 年代에 美國의 9 번째의 貿易 相對國이 되었다. 韓國의 急速히 成長한 經濟는 世界에서도 가장 急速히

擴大하는 市場의 하나를 美國에 提供한 것이다. 한편 美國 市場은 韓國의 經濟成長의 源泉이 되는 輸出드라이브의 主要目標가 되었다. 1982年의 韓·美貿易은 總額으로 115億 弗에 달하였다. 貿易收支의 밸런스는 從前대로 거의 維持되었다. 美國의 對韓輸出額은 55億弗, 輸入額은 60億弗이었다. 그러나 貿易關係는 몇가지의 問題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美國의 景氣後退인데, 美國經濟의 沈滯는 1980年에 停頓狀態에 있던 韓國經濟에 打擊을 주었다. 인플레이션의 昂進, 輸出의 停滯, 그리고 農業마저 不振하여 그 結果 1980年의 韓國經濟는 마이너스成長을 記錄한 것이다. 다음해인 1982年에 들어와 狀況은 好轉하여 이 해의 GNP는 5.4% 增加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景氣後退는 繼續되어 韓國의 輸出의 발을 묶어 버렸다. 韓·美 兩國의 分析家들은 GNP 成長率의 上昇이 工業國, 그중에서도 美國의 經濟擴大에 依存하고 있다는데 同意하였다.

1983年이 되어 美國에서 景氣回復의 조짐이 보여 韓國에서는 愼重한 樂觀論이 擡頭하였지만 回復力과 그 持續性에 대해서는 여전히 不確實한 것이었다. 美國의 GNP가 3% 成長한 것과 韓國의 10~11%의 輸出伸張率에 힘입어 韓國 GNP는 7%의 成長率이 記錄되었다고 韓國의 經濟企劃院長官은 밝혔다.

景氣後退는 또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갖지 못하게 된 美

國의 斜陽産業과 勞動組合과의 사이에서 保護主義的인 傾向이 나타나게 되었다. 保護主義者의 批判의 大部分은 日本이 對象으로 되었지만 韓國도 어떤 生産分野에서는 그 標的이 되었다. 例를 들면 美國의 鐵鋼業界는 韓國製鋼의 輸入을 制限하도록 레이건政權에 作用하였다.

「美國製 칼라 TV 保護委員會」라 稱하는 勞動者와 業界의 그룹은 1983 年에 韓國과 臺灣의 덤핑輸出이 美國의 企業과 勞動者를 壓迫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또 美國 纖維業界도 韓國을 비롯한 東아세아 諸國으로부터의 輸入을 계속 制限할 것을 要求하였다.

레이건政權은 當時에 韓·美貿易의 모든 問題에 대하여 保護主義를 反對하는 立場에 서 있었다.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에 一定한 制限을 加하기 위하여 秩序市場協定の 交渉을 벌이겠다는 카터 前政權의 政策은 拋棄되었다. 레이건政權은 또 칼라 TV와 신발류에 대한 輸入制限을 意味하는 市場協定을 失效시켰다. 그러나 韓國製 纖維製品에 대하여는 輸入制限 交渉을 계속시켜 보다 더 制限的인 立場을 보였다.

한편 韓國側은 1983 年 4 月에 레이건政權이 취한 韓國製 對美輸出品의 免稅特權 撤廢措置를 美國의 對韓輸入政策의 後退로 받아들였다. 美國은 그 經濟的 地位의 向上을 理由로 하여 韓國, 臺灣, 香港, 싱가포르 등 4 個國에 대하여 이러한 免稅權 撤廢措置를 實施하였다. 이 措置로 인하여 影響

을 받는 韓國의 對美輸出은 1億4,000萬弗로 推算되었다. 1983年7月 레이건政權은 特殊鋼의 輸入에 대한 4個年 關稅·輸入쿼터制度를 發表하였다. 韓國은 特殊鋼을 美國에 輸出하는 主要 10個國에 包含되어 있어 이 影響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5. 새로운 問題들

1983年까지 韓·美 兩國은 1970年代 論議의 대상이 되어 온 몇가지 問題를 덮어두어 왔다.

韓·美 兩國은 健全한 基盤에 바탕을 두어 兩國에서 그 行方에 관한 樂觀的인 展望을 産出해 내었다. 그 結果 만 약 進展하게 되면 現在의 情勢를 逆轉시키게 될지도 모를 重要한 問題의 存在가 숨겨져 왔던 것이다.

韓半島의 安全保障과 經濟關係가 두개의 큰 問題이다. 安全保障에 관해서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軍事力 增強의 계속과 外交上의 움직임의 缺如 때문에 다음과 같은 問題가 提起된다. 즉 平和는 앞으로도 상당한 期間에 걸쳐 保障될 것인가, 아니면 北韓은 이때까지 增強시켜온 軍事力을 반드시 使用할 것인가 하는 疑問이다. 經濟에 관해서는 美國經濟의 行方과 美國에서의 保護主義的인 傾向을 둘러싸고 不確實性이 存在하고 있다. 韓國의 經濟成長 發展에 관한 展望은 美國經濟의 回復과 保護主義의 抑制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 兩國間의 經濟的 緊張이 쌓이면 安全保障 關係를 둘러싼 美國의 認識에 좋지 못한 影響이 생길 것이다.

相互의 認識이 第3의 問題領域이 되어 있다. 輿論調査에 따르면 많은 美國人이 여전히 韓國에 대하여 否定的인 이미지를 안고 있다. 그 理由는 韓國에서의 人權의 抑壓, 經濟發展과 높은 生活水準에 대한 無知, 朴東宣事件과 文鮮明의 統一教會에 관한 美國內에서의 論爭등에 있다. 最近 韓國에서의 反美主義도 그 한 原因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앞으로도 繼續 높아질 것인가 아닌가는 韓國民主化의 發展, 經濟狀況, 政治的 安定, 그리고 韓國內 反體制派의 處遇등을 美國政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西太平洋에서 擴大되는 韓國의 防衛役割은 經濟·軍事力을 높이고 國際的 威信을 韓國이 갖추게 됨에 따라 將來의 問題로 될 것이다.

1982年 레바논政府는 레바논에 駐屯하는 國際平和維持軍에 韓國의 參加를 要請하였는데, 이 일도 그 點을 示唆하는 하나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防衛責任의 擴大를 日本과 ASEAN諸國에게 바라는 美國의 이니시어티브는 早晚間 韓國에 影響을 미칠 것이다. 韓·美의 研究家中에는 對空防衛와 對馬海峽 機雷封鎖의 面에서 韓國이 할 수

있는 對蘇 役割에 關하여 이미 檢討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關聯되는 것으로써 核兵器의 問題가 있다. 極東에서의 蘇聯의 核戰力の 增強(SS - 20 미사일, 백파이어 爆擊機, ICBM搭載 델타級 潛水艦의 配置)은 틀림없이 美國의 對應을 誘發할 것이다. 問題는 언제 어디서라는 두 點으로 壓縮되게 된다. 韓國은 美國에게 中距離미사일, 核彈頭裝着 巡航미사일 그리고 中距離 爆擊用 미사일의 基地를 提供할 수 있는 나라이다. 만약 美國이 이러한 兵器를 韓國內에 配置할 것을 提起한다면 그것은 韓國政府에 대해 東北아세아의 파워·밸런스과 國家間 關係에도 深大한 影響을 미치는 苦難의 決定을 強要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Ⅱ. 소聯의 對韓半島 政策

1. 序 言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은 어떠한 要因들에 依하여 決定되고 있는가. 本 論文에서는 우선 最近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 與件들을 分析하고자 한다. 이어서 어떠한 狀況下에서 蘇聯의 政策이 變更될 수 있는가. 끝으로 그와 같은 政策變更은 具體的으로는 어떠한 것들인가를 檢討하고 싶다. 分析의 焦點은 다음 點들에 맞추어질 것이다.

- ① 蘇聯을 둘러 싸고 있는 國際環境속에서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關聯이 있다고 생각되는 部分 또는 側面은 무엇인가.
- ② 앞으로 數年間に 豫想되는 國際環境 특히 韓半島 政策에 關聯이 있는 側面에서의 主된 傾向은 어떤 것이겠는가.
- ③ 蘇聯은 앞으로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 柔軟性の 幅을 어느 程度로 判斷할 것인가. 그래서 本稿에서 使用되는 「柔軟性」이란 蘇聯이 韓國側의 利益에 合致되는 政策을 追求하는 傾向을 指稱하는 것으로 하겠다.

2. 最近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當然한 말이 되겠지만 蘇聯의 立場에서 보아 東아세아에 있어서 他國에 依한 霸權 或은 支配的 影響力の 樹立을 沮止하는 것이 蘇聯의 國益에 合致한다.

이 點을 좀 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면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決定에는 다음과 같은 考慮가 作用하고 있다.

① 韓半島를 둘러 싸고 美蘇關係가 惡化하여 蘇聯의 國益을 해쳐서는 안된다. 특히 美國과의 軍事的 對決은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韓半島 問題와 관련하여 日本의 國內政治 路線 및 外交政策이 蘇聯의 國益을 害치는 方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避해야 한다.

日本의 軍事力 增強, 核武裝의 挑發이나 日本의 對中共·對美 軍事協力을 促進시키는 따위의 事態는 避해야 한다. 蘇聯의 日本과의 經濟協力에도 惡影響을 미치게 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③ 韓半島를 둘러싼 問題로 因하여 中共의 國內政治 및 對外路線이 보다 더 反蘇的으로 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특히 韓半島에 있어서의 中共의 影響力을 強化시키게 되는 것은 避해야 한다. 北韓에 대한 北京의 支配的

影響力の 確立을 沮止시켜야 한다.

西方 專門家중 많은 사람들은 蘇聯이 韓半島에 獨逸方式의 適用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根據로써 蘇聯側이 蘇聯內에서 개최되는 國際會議에 韓國人의 參加를 許容하고 있는 點, 蘇聯 專門家와의 非公式 水準에서의 接觸 許容등을 들고 있다. 많은 蘇聯 專門家들이 北韓의 統一政策을 非現實的인 것으로 생각한대거나, 韓半島의 分斷 事實을 하나의 現實로써 把握하고 그 分斷狀態가 長期間 繼續될 것으로 想定하고 있다 해도 蘇聯政府가 獨逸方式의 適用을 公式으로 提案한 일은 現在로서는 볼 수 없다. 獨逸方式의 實現을 爲하여 蘇聯政府가 眞摯한 外交努力을 傾注한 일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民間 레벨—특히 國際會議와 같은 틀 속에서—에서 蘇聯·韓國間의 接觸 또는 間接的 貿易에 그칠 뿐인 것으로서 兩國間의 政府 레벨에 依한 雙務的인 性格의 公式接觸은 아직 存在하지 않았다.

따라서 蘇聯 專門家들이 「個人的」 立場에서 獨逸方式 即 「두개의 韓國」, 交叉承認등에 대하여 諒解의 默示 程度의 意思表示를 하여, 이것을 蘇聯側의 속셈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重要的 것은 蘇聯政府가 名分이긴 하지만 如前히 公式的으로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한다고 表明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이 公式立場인 限,

蘇聯의 公的 外交活動은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實情인 것이다.

蘇聯이 韓半島 問題에 대하여 現實적으로 柔軟性 있는 外交(西方側에서 보아 現實적이며 伸縮性이 있다는 뜻)를 展開하지 못하는 理由로서 다음 두가지의 制約要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北韓의 強硬한 反對姿勢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두개 朝鮮 造作의 陰謀」에 완강한 反對의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蘇聯의 韓國과 어떠한 種類의 接觸에도 敏感하며 또 反對이다. 蘇聯으로서도 그와 같이 쉽게 北韓을 刺戟할 行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둘째, 中共의 北韓支持 立場이다. 蘇聯側이 韓國에 대하여 좀 現實적이고 柔軟性 있는 姿勢라도 보이면 中共은 반드시 그것을 北韓을 背信하는 行動이라 하여 蘇聯을 激烈하게 非難하여 蘇聯을 窮地에 몰아 넣는다. 蘇聯으로서도 中共·北韓關係의 進展에 敏感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中共·北韓의 密着을 促進하는 따위의 行動은 避하고 싶다는 考慮가 있다.

以上の 두가지 要因에다 蘇聯으로서 또 하나의 要因은 美國政府의 韓半島에 대한 意圖이다. 即 美國政府의 韓國政府에 대한 支持의 密度, 또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의 推移를 蘇聯이 어떻게 判斷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蘇聯이 美國의 韓國支持 密度를 判斷할 때 駐韓美軍의 存在가 큰 比重을 차지한다. 蘇聯이 駐韓美軍의 撤收問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간단히 紹介하고 싶다.

1977年 봄 카터前大統領의 駐韓美軍 減縮決定이 있었는데 그 決定은 蘇聯 專門家를 놀라게 하였다.

카터 大統領의 選舉公約이 있었지만 美軍撤收 決定이 주는 國際的 意味에서 보아, 카터 新政權이 美軍의 大幅的인 減軍을 한다고는—그것도 北韓에 대한 아무런 對策도 없이—생각할 수 없었다. 特히 蘇聯 專門家들에게 理解할 수 없었던 일은 美軍의 駐屯에 依해 美國政府가 南北韓 政府나 第3國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有利한 지렛대를 一方的으로 拋棄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蘇聯 專門家들은 카터 政權의 發表에도 不拘하고 實際로는 그 撤收案이 實施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疑問을 품고 있었으며 설령 撤收한다 해도 韓國의 安定과 이 地域에서의 힘의 均衡이 무너지지 않도록 留意하면서 撤收할 것으로 分析하고 있었다.

蘇聯은 駐韓美軍을 美國의 韓國支持의 바로미터로써 解釋하고 있다.

카터 政權當時 蘇聯은 카터政權의 對韓政策을 매우 不安定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었다는 事實이 蘇聯이 對韓政策上의 柔軟性的 誇示를 어렵게 만드는 要因의 하나였다.

레이건新政權 登場後 韓國에 대한 美國의 強力하고 一貫된 支持는 蘇聯側도 잘 알고 있다.

蘇聯立場에서 볼때 美國의 韓國支持가 一貫적인 時期에는 韓國과의 政策을 追求하기가 쉽다.

하기야 美國이 韓國을 拋棄하기 直前이라는 狀況下에서는 蘇聯은 韓國과의 接近에 보다 큰 意慾을 보일지도 모른다.

蘇聯의 對韓政策에서 볼 수 있는 慎重하고 硬直된 姿勢는 上述한 一連의 牽制的 要因만으로는 充分히 說明될 수 없다. 蘇聯 政策에 있어서 柔軟性的 缺如는 柔軟性を 誇示함으로써 蘇聯이 取得할 수 있는 明確한 利益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上述한 制約要因의 作用에 依하여 蘇聯에 미치는 不利益을 相殺하고도 남을 程度의 큰 利益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그 理由이다. 蘇聯 專門家들이 個人的 對話에서 아무리 柔軟한 姿勢를 보인다 해도 蘇聯政府의 公式見解가 蘇聯外交의 限界를 規定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蘇聯은 社會主義 國家로서의 北韓의 獨立을 守護 하겠다는 姿勢이지만, 同時에 또 韓半島에서 戰爭이 再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戰爭回避가 蘇聯의 國益에 合致한다는 認識을 가지고 있는 것도 分明하다. 그러기 때문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 平和安定을 追求한다는 것이 蘇

聯의 政策이다.

中蘇關係 改善의 조짐과 特히 이 數年來의 美蘇關係의 惡化라고 하는 狀況에서 미루어볼 때 이 以上 進展한 狀況에 있어서의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別問題인 것이다.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展望

가.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國際環境에서 오는 外的要因

蘇聯의 對韓政策을 展望함에 있어서 먼저 蘇聯의 政策을 決定짓는데 影響을 미치는 諸般要因부터 分析해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理論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要素中에서 몇가지 項을 擇하여 蘇聯의 對韓政策과의 關聯性을 假說·主張의 型態로 分析하겠다.

하나 하나의 假說은 現實을 지나치게 單純化시킨 것이다. 假說에 內包된 外的要因은 勿論 個別的으로 다른 外的要因과는 동떨어진 形態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다. 政策決定者는 決定을 要하는 어느 特定の 時機에 存在하는 狀況下에서 關聯이 있다고 看做되는 모든 다른 外的要因을 檢討하는 것은 當然하다.

即 여기에 提示한 여러가지 假說은 - 적어도 政策決定

者가 特定한 狀況下에서 關聯있다고 判斷한 것은 - 모두가 相關性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現實을 數個項의 單純한 假說의 形態로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 提示했는데, 그것은 分析을 爲한 便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① 美蘇關係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의 柔軟性은 美蘇間의 關係惡化와 反比例한다.

美蘇關係가 惡化될수록 蘇聯은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擴大하려 할 것이며 그것은 곧 北韓의 利害에 대하여 蘇聯이 가장 敏感하게 行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蘇聯의 對韓國 政策은 北韓에 依하여 牽制받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美蘇關係가 惡化했을 경우에 蘇聯은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行使함으로써 韓半島에서 美國의 利益에 反하는 狀況을 創出하는 能力을 誇示할런지도 모르며, 歐羅巴에서의 戰爭등 有事時에 그와 같은 影響力을 實際로 行使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美蘇間의 友好關係가 蘇聯의 對韓國 政策에 반드시 柔軟性을 갖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狀況에서 蘇聯은 直接 或은 間接的으로 韓國에 대하여 極度の 敵對的인 行動을 삼가하게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美國과의 關係가 蘇聯의 韓國에 대한 一連의 非友好·敵對行爲에 대한 牽制로써 作用하는 強度는 蘇聯側의 美蘇間의 全體的인 힘의 밸런스에 대한 認識에 依하여 影響을 받는다. 即 蘇聯側이 저들의 對美 有利를 믿게 되면 美·蘇 友好關係가 큰 牽制要因으로써 作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美國·日本·中共關係

美國·日本·中共의 어느 한나라 또는 2個 혹은 3個國 全部로부터의 威脅이 增大될수록 蘇聯의 北韓에 대한 支持는 높아지고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低下된다.

美國·日本·中共關係에 대하여 蘇聯은 極도로 敏感하다. 美·日·中 3國間의 關係에서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面과 어떠한 側面이건 協助關係를 促進시키는 事態는 蘇聯에 대한 威脅으로 미치게 된다.

蘇聯은 3個國의 兩者 特히 3個國의 軍事的 協力の 可能性에 대하여 敏感하여, 그러한 方向에의 움직임을 蘇聯의 國益에 대한 重大한 威脅으로 把握하는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면 美國과 日本間의 軍事的 協力關係가 밀접해짐에 따라 蘇聯은 北韓支持를 強化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무슨 北韓側의 憂慮를 풀어주기 爲한 것이 아니라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增大시켜 日本과 美國에 대하여 보다 강한 지렛대의 役割을 取得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③ 南北韓 關係

南北韓 當事者間의 現狀維持에 대한 諒解의 成立이라는 方向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增大될 것이다.

北韓自身이 韓半島 分斷의 現實을 認定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기 始作하면 蘇聯側이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躊躇할 理由가 없어진다. 여기서의 前提는 南北間의 關係改善이 美國·日本·中共間 協力의 一環으로써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南北韓間의 關係改善 措置가 反蘇的인 國際勢力에 대해 北韓側의 接近에 依한 것이라고 認識될 경우에는 蘇聯의 政策은 南北韓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友好的일 수 없다는 것은 分명한 일이다.

④ 中共·北韓 關係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北韓의 中共·蘇聯사이에서 의 等距離 政策의 比重 如何에 反比例한다.

蘇聯側으로서는 北韓에 대한 影響力을 維持하여 北韓이 中共과 緊密한 同盟關係로 發展하는 것을 沮止하려 한다.

그로써 얻어지는 蘇聯의 利益은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蘇聯의 北韓에 대한 影響力은 蘇聯의 美國·日本·中共과 의 關係에 있어서 有利하게 作用한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孤立을 指向하고 있는 蘇聯의 政策에도 合致된다.

그리고 또 北韓이 反蘇同盟에 끌려 들어감으로 해서 그 同盟側에 戰略的 利益을 주게 되는 것을 阻止하게 된다.

만약 北韓이 中共側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蘇聯이 판단할 경우 蘇聯은 어느 程度 北韓支持를 強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로 因해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的의 誇示는 그만큼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얼마만큼 自由롭게 中共傾斜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는 疑問이다. 蘇聯側은 이런 點에 대하여 큰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에 있어서 必要한 最新銳兵器는 蘇聯이 供給하고 있다.

둘째, 北韓은 軍事面 뿐만 아니라 經濟面에 있어서도 蘇聯으로부터의 援助가 必要하다.

셋째, 世界外交의 舞臺에서 蘇聯의 支援이 얼마나 重要的가를 北韓 指導層은 잘 알고 있다.

넷째, 北韓側은 中共을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蘇聯側에서 보아 저들의 利益에 反하는 方向으로 中共·北韓의 關係가 進行되고 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所謂「한국 카드」를 使用함으로써 北韓의 利益에 相反되는 行爲도 서슴치 않을지 모른다. 蘇聯은 1982年 가을에 塔斯通信 社員과 文化省의 高官이 서울에서의 國際會議에 參加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있다.

蘇聯은 1973年 以來 蘇聯內에서의 各種 國際的 性格을 띠는 會合에 韓國의 代表團의 入國을 許可해 왔지만, 韓國은 自國內에서의 會議에 - 國際會議에까지도 - 1981年까지도 一切의 蘇聯人의 參加를 認定하지 않았다.

1981年 蘇聯이 韓國에 보인 柔軟한 態度는 1982年의 가을에 誇示되었다. 中共·北韓 關係의 큰 進展과 無關하지 않다.

金日成의 中共訪問 - 中共訪問때의 兩側 首腦의 演說과 行動을 包含하여 -에 象徵된 中共·北韓 關係의 緊密化에 대한 蘇聯의 不滿과 牽制의 意味가 있었을 것이다. 勿論 蘇聯代表의 서울 會議 參加는 蘇聯의 北韓에 대한 「한국 카드」 使用의 決意를 나타내는 것 뿐만은 아니다.

蘇聯側이 韓國에 대한 好意 - 敵對心의 缺如 -를 그저 適當한 時機에 表明해 보려는 意圖, 그리고 또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를 非政治的인 面에서만이라도 서서히 進行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表示된 것이다.

筆者가 接觸한 蘇聯 專門家は 1983年 봄 現在에도 北韓과의 關係를 大體的으로 良好하다고 判斷하고 있으며 中共·北韓 關係의 進展에 그다지 神經을 쓰지 않고 그저 北韓이 中蘇의 中間地點에서 基本的으로는 等距離 政策을 追求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으로 -但은 評價하고 있었다.

그러나 蘇聯側으로서는 北韓의 印度支那半島 問題에 대한 態度가 親中共的이라는데 대하여 不滿을 품고 있다. 中共·北韓 關係가 蘇聯의 對韓國 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한 要因은 確實한 것이다.

뒤에서 말할 要因 以外에도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社會主義 國家의 連帶感, 第3世界の 反應 등도 蘇聯의 對韓國 政策에 대한 柔軟性を 牽制하는 作用을 하고 있다는 것을 指摘해 두고 싶다.

⑤ 中共·韓國 關係

蘇聯의 對韓國 政策에 있어서의 柔軟度は 中共의 對韓國 柔軟도와 正比例하고 있다.

여기에는 南北韓間 關係가 相當히 改善되었다는 것이 그 前提가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中共側에 依한 對韓 柔軟性の 誇示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蘇聯側은 中共·韓國間의 接觸에 敏感하여 中共·韓國 兩國間에 무슨 秘密接觸이라도 進行中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蘇聯은 韓國側이 中共과의 關係를 增進시키는 것은 한국의 國益에 合致되지 않으며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를 害치는 것이라는 警告 비슷한 評價를 表明한 적이 있었다.

蘇聯은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進展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中共이 韓國에 대하여 柔軟한 政策을 取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되었을 경우에는 蘇聯도 마찬가지로 韓國에 대하여 柔軟한 姿勢를 보이게 될 것이다.

中共의 影響力을 封鎖하려는 考慮도 作用할 것이지만 蘇聯側으로서는 蘇聯이 社會主義 友邦國인 北韓을 背信하고 있다는 中共側의 非難을 이젠 接낼 必要가 없어서 韓國에 대한 柔軟한 政策을 展開하기가 容易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中共은 蘇聯이 韓國人の 入國을 許容했을 때 蘇聯을 強烈하게 非難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1년에 中共의 學者가 - 美國 留學中の 學者 - 서울에서의 國際會議에 參加한 것이다. 前述한 1982년에 있었던 蘇聯代表의 韓國 訪問은 中共學者의 韓國訪問 促進劑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⑥ 美國·北韓 關係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가 進展되면 될수록 蘇聯側의 對韓國 柔軟性은 增大하게 된다.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改善은 美·韓 關係의 惡化 또는 美國·韓國 兩國間의 友好關係라는 狀況下에서 있을 수 있지만 蘇聯의 對韓國 柔軟性이 擴大되도록 하기 爲해서는 美國과 北韓間의 關係改善은 美國·韓國 兩國間의 協議나 韓國側의 諒解를 얻은 것이라는 蘇聯側의 認識이 必要하다.

蘇聯은 美·北韓間의 關係進展에 敏感하며 蘇聯 專門家가 作成하는 美國·北韓間의 關係增進을 위한 시나리오는 西方側 專門家の 그것과 비슷하여 興味롭다.

⑦ 美國·韓國 關係

美國과 韓國 關係가 惡化되면 될수록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は 擴大한다.

蘇聯側에서 보아 韓·美關係는 매우 緊密하며, 蘇聯과 韓國間의 接觸을 擴大해 보아도 韓國에서의 美國의 影響力을 弱化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北韓을 極도로 刺戟하면서까지 對韓關係를 增進시켜 보았자 蘇聯이 얻는 利益은 別로 크지 않다고 判斷하고 있다. 韓美關係가 아주 惡化되어 있을 경우에는 韓美間의 離間促進과 韓國內에서의 蘇聯의 影響力 扶植을 爲한 對韓 柔軟性 誇示의 意欲은 增大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의 密接한 軍事協力の 進展은 蘇聯側의 對韓 柔軟性を 縮少시키는 한편 友邦인 北韓에 대한 心慮가 強化되어 있는 時機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狀況에서 蘇聯의 柔軟性の 誇示가 韓國側을 對蘇友好로 誘導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⑧ 日本·韓國 關係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は 韓·日 兩國間의 軍事協力度에 反比例한다.

蘇聯側에서 보면 日本의 軍事力 增強에 關聯되는 事態는 自國의 利益에 反對된다.

蘇聯은 日本이 韓國의 國防産業에 實質的인 지렛대 役割을 하고 있으며 美國과 함께 韓國을 反蘇 軍事戰略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日本의 軍事的 役割에 대한 意味에 憂慮를 表明하고 있다.

蘇聯 專門家は 勿論 日本憲法 및 政治的 여러 制約을 認識은 하고 있지만 美·日間の 軍事協力の 進展과 日本國內의 防衛論議의 動向에 큰 關心을 가지고 注視하고 있다.

蘇聯은 韓·日 防衛當局者間의 相互訪問등을 注目하고 있지만 이 點에서의 蘇聯側의 反應은 美軍의 韓國 駐屯, 美·日間の 軍事協力の 緊密化등과 같은 背景을 생각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日本이나 美國의 對蘇軍事力 增強에 直結되는 일은 蘇聯에게는 큰 關心事인 것이다.

⑨ 日本·北韓 關係

蘇聯의 對韓 柔軟性은 日本·北韓間의 政治經濟的 紐帶의 強度에 正比例하고 있다.

日本·北韓 關係의 進展은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 誇示를 容易하게 한다. 여기서의 條件은 日本·北韓 關係가 日本·韓國 關係를 犧牲시킨 것이 아니라는 蘇聯側의 認識이 있어야 한다.

即 韓日關係가 惡化된 것과 같은 狀況下에서의 蘇聯側의

對韓國 柔軟性 誇示는 北韓과의 關係때문에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同時에 그 機會를 利用하여 韓國에의 接觸을 擴大하려는 意慾도 있을 수 있다.

蘇聯側은 日本政府가 韓國과의 友好關係를 고려하겠지만 서서히 南北韓에 대하여 좀더 等距離 政策으로 나아갈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⑩ 日本·蘇聯 關係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日·蘇間의 政治經濟 關係의 進展에 影響을 받는다.

日·蘇間의 關係改善은 日本의 對外活動에 대한 蘇聯의 念慮를 減少시키고 蘇聯의 對韓國 政策에도 肯定的인 雰圍氣를 造成한다.

⑪ 中·蘇 關係

中蘇對立이 激化하면 할수록 蘇聯의 北韓支持가 強化되고 韓國에 대한 柔軟性의 誇示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中·蘇間의 利害가 꼭 中共과 蘇聯 各各의 對韓 政策上의 柔軟性을 招來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⑫ 北韓·蘇聯 關係

①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北韓의 對蘇 依存度에 正比例한다.

②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은 北韓·蘇聯間의 關係惡化와 正比例한다.

即, 蘇聯側에서 보아北韓의 蘇聯에 대한 依存도가 높을 때 또는 蘇聯·北韓 關係가 惡化되었다고 判斷될 때에 韓國에 대한 柔軟性を 誇示하는 可能性이 높아진다.

逆으로 蘇聯에서 보아北韓의 아프가니스탄 事件과 印度支那紛爭에 대한 態度는 不快한 것이 된다.

蘇聯의 路線에 대한 더 深刻한 挑戰 또는北韓의 明確한 親中共 一邊倒의 姿勢는 蘇聯의 對應措置를 불러 일으키게 되겠지만 그러한 狀況에서의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の 誇示는 充分히 豫想된다.

理論的으로는 豫想되는北韓의 內部危機 - 極度の 經濟危機 或은, 金日成 死亡後의 權力鬭爭 등으로 因하여 - 에서 오는 蘇聯에의 依存度 增大는 蘇聯側의 對韓 政策上의 柔軟性 誇示를 容易하게 만든다.

⑬ 蘇聯에서 본 韓國의 國內事情과 外交政策의 方向

① 韓國의 國內情勢(政治, 經濟, 社會)의 不安定性이 增大함에 따라 蘇聯의 韓國에 대한 政策的 柔軟性은 그 可能性이 低下한다.

蘇聯側에서 보아 韓國의 不安定 政權 또는 正統性이 確立되어 있지 않는 政權과 接觸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冒險이 되어 困難하다.

蘇聯側에 있어서 특히 政權의 安定도가 問題가 된다.

② 韓國의 外交政策이 自主性, 獨立性を 增大시킴에 따라

蘇聯의 韓國에 대한 政策上的 柔軟性도 增大한다.

韓國側이 美國의 戰略的 利益에 反對되는 政策을 追求할 用意을 보이면 보일수록 蘇聯側이 韓國에 대한 柔軟한 政策을 取할 意慾이 增大한다.

以上, 蘇聯의 韓半島 政策에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主된 國際的 要因을 指摘해 보았는데 그 밖에도 論理的으로 생각할 수 있는 外的 要因(예를 들면 蘇聯과 西歐, 東歐와 中東과의 關係등)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나. 外的 여러 要因에 나타난 傾向

蘇聯의 韓半島 政策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 國際環境이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하는 點에 관하여, 國際環境을 造成할 몇가지 要因들에 대하여 다음의 다섯 側面에서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 ① 最近의 어떤 兩國間의 關係에 重要한 變化가 일어날 可能性.
- ② 協助와 敵對關係라는 兩極을 連續線에서 表現, 定位를 했을 경우에 特定 兩國間에 今後 數年동안의 關係를 어떻게 特徵지을 수 있을까.
- ③ 蘇聯의 憂慮를 높게 한 最近의 情勢가 存在하였는가의 興否.

- ④ 今後 數年間 蘇聯의 憂慮를 高揚시켜서 蘇聯의 柔軟性を 減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主된 情勢變化 傾向.
- ⑤ 蘇聯의 柔軟性を 높이기 될 것으로 생각되는 情勢變化의 傾向.

이러한 側面에서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蘇聯의 中長期 對韓半島 政策에 影響을 주는 外的 要因들 中에서 蘇聯의 韓國에 대한 柔軟性を 높이는 作用을 할 可能性이 얼마간 있는 것은 다음 두가지 이다.

- ① 美國의 對北韓 政策
- ② 日本의 對北韓 政策

蘇聯의 中長期 對韓政策에 있어서의 柔軟性を 減少시키는 機能을 한다고 判斷할 수 있는 外的 要因에는 다음의 6種이 있다.

- ① 美·中共 關係의 推移 傾向
- ② 日本·中共 關係의 推移 傾向
- ③ 日本·美國 關係의 推移 傾向
- ④ 中共·蘇聯 關係의 推移 傾向
- ⑤ 美國·蘇聯 關係의 推移 傾向
- ⑥ 美國과 西歐諸國과의 關係 推移 傾向

全般的으로 檢討해 보면 蘇聯의 韓國에 대한 政策上的 柔軟性を 增大시키는 外的要因에 比하여 柔軟性を 低下시키는

外的要因의 比重이 強하게 作用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蘇聯의 外交政策에 影響을 미치는 國內要因
가. 및 나.의 分析에서는 蘇聯外交政策에 影響을 미치
는 內的要因은 考慮에 넣지 않았다.

여기서 蘇聯의 國內政治, 이데올로기, 經濟등 國內要因들이
앞으로 數年동안 蘇聯의 對外政策과 安全保障 政策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檢討해 보려고 한다.

蘇聯의 政策 決定者가 “一心同體”와 같은, 意見이 完全
히 統一된 集團이 아닌 것은 確實하다.

蘇聯에서도 政策決定 機關에서의 意見의 相違나 所謂 官
僚主義 現象이 存在한다. 勿論 蘇聯에서의 政策論議는 公式
的으로 決定된 黨·政府의 機構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지만.

外交·防衛 問題에 있어서의 重要的 決定이 軍이나 「防
衛産業」의 諒解없이 이루어 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利益團體」의 意向은 黨機構속에 잘 反映되어 있
다.

브레즈네프의 所謂 데탕뜨政策도 西歐式 表現으로 말을 하
면 蘇聯의 軍産複合體의 承認을 거친 후에야 可能했었다고
들 하고 있다. 軍과 重工業의 利益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蘇聯의 國家事業에 있어서 優先順位의 大幅的인

變更, 或은 眞正한 地 땅뜨政策에의 轉換을 熱烈히 歡迎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外務省으로서도 黨·軍·KGB (國家保安委員會) 등의 利益·意思에 어긋나는 政策을 推進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外務省 自體가 다른 擔當部處와의 사이에 矛盾되는 利益을 調整하지 않으면 안된다.

政策決定 過程에서 가장 重要한 機關은 黨의 國際部이다. 美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協助 또는 讓步的 態度를 取하는 것에 黨의 國際部는 大體로 慎重하며 이를 牽制하는 立場에 있다고 한다.

政治局은 브레즈네프 政權下에서의 政策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現時點으로서는 斷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世界政治에 있어서 東西間 힘의 밸런스의 趨勢에 관한 蘇聯 自身の 認識을 考慮에 넣는다면, 蘇聯側이 저들의 外交·戰略目標 達成을 爲하여 敢行할 用意가 있는 危險度는 西方側의 專門家들이 이때까지 생각해온 것보다는 相當히 높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美國에 대한 敵對感情, 基本的인 對決姿勢가 앞으로 蘇聯外交의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蘇聯經濟의 沈滯가 外交에 미치는 影響은 어떠한가. 經濟事情이 極度로 惡化되었을 경우 國防豫算의 削減도 있을 수

있겠지만 原則的으로 經濟에 대한 政治優位の 方針이 貫徹될 것이다. 對經濟 優位도가 相當히 높아졌다해도 반드시 政治面에서의 重要的 變化에 連結되는 것은 아니다.

指導層의 政治的 利益이 가장 큰 比重을 占한다고 보아도 좋다.

안드로포프 新政權下에서 當分間은 從來의 政策을 踏襲할 것이다.

안드로포프의 書記長 選出에는 軍의 支援이 緊要했다고 하며, 軍의 意思에 反하여 政策面에 있어서의 큰 轉換을 圖謀한다는 따위는 困難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 指導層의 權力의 基礎는 이때까지의 政治經歷과 經驗으로 보아 적어도 가까운 將來에 브레즈네프路線에서 基本的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브레즈네프는 그의 晩年에 와서 絶對적으로 制度化된 政治權力을 가지면서도 重要的 問題에 대해서는 政治局 同僚의 意向을 尊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안드로포프 政權이 直面하고 있는 主要的 政治問題의 性格으로 보아 根本적인 外交·安保面에서의 큰 政策變更을 敢行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黨內에서의 權力鬭爭과 政策論爭 및 國際情勢의 今後 趨勢는 새로운 政策으로의 轉換을 어렵게 하는 要素가 된다.

蘇聯 外交政策의 形態에 있어서 國益이나 或은 이데올로

기가 더욱 重要하느냐 하는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대한 論議를 여기서 復活시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筆者의 見解로는 이데올로기는 蘇聯側의 現實에 대한 認識에 影響을 미친다.

蘇聯 指導層이 품고 있는 國益의 概念 그 自體에 이데올로기의 要素가 담겨져 있다.

非이데올로기의인 考慮에 影響을 받은 蘇聯의 行動에 대한 正當化 機能만이 이데올로기의 役割이 아닌 것이다.

第3世界나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蘇聯의 支援이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符合되어 있는 限, 이데올로기는 蘇聯의 行動을 規制한다. 또 이데올로기가 蘇聯의 對外行爲를 強要하는 하나의 原則이라는 見解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데올로기가 蘇聯의 政治體制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的인 機能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蘇聯政府가 데탕뜨政策을 追求하고 있던 時期에 政府는 同時에 이데올로기鬭爭의 強化를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다.

蘇聯體制의 維持를 爲하여 이데올로기 面에서의 正統性이 必要하며, 이에는 또 美國에 대한 基本的인 敵意가 必要的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蘇聯에서 穩健하고 實用的인 體制 또는 政治에의 移行을 沮害하는 機能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蘇聯의 國內政治의 推移를 이렇게 把握하는 것이 妥當하

다고 본다면 蘇聯의 外交·防衛政策面에서의 큰 轉換은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 成立된다.

4. 結 論

政治·經濟·이데올로기의 要素라는 國內要因을 檢討한 結果 가까운 將來에 內的 要因에서 發生하는 外交政策上的의 큰 轉換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서 檢討한 國際政治上的의 外的 여러 要因의 關聯性和 比重은 앞으로도 계속 蘇聯의 外交政策 形成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Ⅲ.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1.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基本立場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의 基調는 무엇인가 라는 設問에 대하여 明確하게 對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確實히 1965 年의 韓日關係 正常化以來 日本은 韓國과의 友好關係 維持를 支柱로 하여 北韓과도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를 進行시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希求한다는 立場을 始終一貫 堅持하여 왔다.

그러나 그 內實面에 있어서는 若干 不透明性에 싸여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利害는那邊에 存在하는 것인가. 日本의 韓國政策의 속셈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問題에 關係 생각해 보고자 한다.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基本的 立場은 다음 몇가지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即 日本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가 日本을 包含한 東北 아세아의 平和와 安全을 爲해서 重要하다는 基本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緊張緩和를 爲한 國際環境 造成에 可能的 限의 모든 面에서의 貢獻을 基本方針으로 삼고 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① 韓半島의 南北韓 當事者 自身들이 1972 年の 南北共同聲明 精神에 立脚하여 實質的인 對話를 再開하는 것이 緊要하며,

②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爲해서 南北韓間의 均衡이 重要하며,

③ 駐韓 美軍의 撤收問題에 關해서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害치지 않는 狀況下에서 推進되는 것이 緊要하다는 基本認識下에 日本이 可能한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

그리고 現在 韓半島에 平和共存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狀況을 감안하여 韓國과의 友好關係의 維持·發展을 基本으로 하고 北韓과는 貿易·人物·文化 分野에서의 交流를 漸進的으로 推進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相互理解 增進을 圖謀하는 方針이다. (三谷精夫論 『韓半島의 政治經濟 構造』,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1983 年 p.204-205 參照)

以上の 說明은 現在 日本政府가 取하고 있는 基本的 立場을 거의 正確하게 傳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基本立場의 「속셈」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먼저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가 重要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韓半島의 現狀維持」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勿論 韓國·北韓이 다 함께 標榜하고 있

는 「韓半島의 統一」에 正面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現狀維持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公式적으로는 決코 表明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日本政府의 「속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政策配慮는 「安全」보다는 「安定」이라는 思考方式이다. 勿論 「安全」과 「安定」이라는 말의 뜻은 對立概念은 아니며, 먼저 「安全」이 있어야만 「安定」이 있을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安全」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韓國의 安全」으로 생각되기 일쑤였으며, 그것이 韓國에 대한 지나친 그리고 너무 積極적인 參견으로 看做되어 온 것도 否認할 수 없다.

그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日本의 姿勢는 「韓國의 安全」重視라고 하는 積極적인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韓半島의 安定」을 바란다는 말하자면 消極적이고 傍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韓半島의 現狀維持」政策의 本質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點을 좀더 詳細히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첫째, 日本의 安定을 害칠지도 모를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現狀의 安定」의 편이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南北韓 間의 對話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도 否定할 수 없다. 그것은 韓半島의 「安定」에 寄與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세째, 南北韓間의 均衡은 現狀을 維持하는 데에도 가장 重要한 것으로 看做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韓國의 優越에 依한 均衡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北韓의 優越에 依한 것일지라도 安定만 유지된다면 日本은 그것을 받아 들일 것이다.

네째, 駐韓美軍의 存在에 對해서는 勿論 그것이 앞으로도 長期間에 걸쳐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但 早晚間에 美軍撤收의 때가 와도, 그에 積極的인 反對를 내세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重要한 것은 美軍의 代役을 日本의 海·空自衛隊가 어느程度 떠맡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問題이며 이點에 있어서는 日本은 될 수 있는한 그것을 回避하기 爲해 힘쓸 것이다.

다섯째, 韓國과의 友好關係의 維持는 무엇보다도 經濟的 利益에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卑俗한 말로 表現한다면 「韓國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重要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그러나 北韓을 無視하는 것은 韓半島의 安定을 무너뜨리는 方向으로 作用할 우려가 있으므로 日本에게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며, 北韓과의 一定距離의 關係維持는 重要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의 基調는 「韓半島의

安定=現狀維持」에 一貫된다고 본다.

以上과 같은 前提下에 다음으로 最近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을 回顧하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韓日經濟協力」에 대한 日本의 政策

全斗煥政權의 登場과 더불어 韓日間の 重大한 懸案으로 나타난 것은 「韓日經濟協力」問題였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始終 守勢의, 말하자면 消極的인 姿勢로 一貫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當初에 韓國側이 提示해 온 100 億弗(政府借款60 億弗, 民間借款 40 億弗)의 「安保經濟協力」要請이 끝끝내 日本側의 充分한 理解를 얻지 못한데서 起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자기 韓國側이 巨額의 借款을 要求해 왔으며 더구나 그것도 安保問題까지 얽힌 것은 日本에게는 정말로 「뜻밖」이었으며 그點에서 볼 때 日本이 消極的인 姿勢로 一貫한 것은 어떤 뜻에서는 當然했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의 韓日經濟協力 交渉은 韓日 兩國 사이에 가로 놓인 어쩔 수 없는 「認識의 差異-Perception gap」를 한꺼번에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를 억지로라도 單純化시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추려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韓國側은 「安保經協」論에 있어서 그 主張을 前面에 내세워 온 것처럼 日本이 이제까지 韓國에 대하여 「공짜 安保」를 누려 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러한 前提에서 出發하는 韓日經濟協力은 當然히 「日本이 過去부터 밀리고 밀린 外上값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꼴이 되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日本側에서 본다면 韓國側에 대하여 防衛上의 負擔을 지우고 있다는 意識은 稀薄한데다 또 韓國에 대한 經濟協力은 앞으로의 韓國經濟發展에 寄與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要컨데 한쪽은 過去를 問題삼았고 한쪽은 앞날의 일을 問題삼고 있다는 그야말로 認識의 次元 그 自體가 크게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韓國側에서는 이번의 韓日經濟協力 交渉을 「第2의 國交正常化 交渉」으로 把握하는 意識이 存在하고 있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全斗煥政權의 發足과 함께 韓國의 指導層은 大幅的으로 젊어진 셈이었다. 그들은 朴正熙時代에 특하면 「韓日密着」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構造로부터의 「離脫」을 希求하고 남은 韓日關係의 「清算」을 要求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의 韓日交渉에서 韓國에서는 「修復」이나 「再構築」이 아닌 第2의 國交正常化라는 意識이 反映된 「再定立」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日本側의 認識은 크게 다른 것이었다. 적어도 日本의 對韓政策은 「外交의 繼續性」이라는 前提下에 이루어져 있었으며 또 韓國에서처럼 指導層에 大幅的인 「世代交替」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朴正熙大統領 暗殺事件 以來로 서먹해진 느낌을 감출 수 없는 韓日關係를 「修復」하여, 그 基調속에서 經濟協力 問題를 생각한다는 것이 日本側의 認識이었던 것이다.

實際로 1981年 2月 1日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當時의 鈴木首相은 「韓日關係를 (朴正熙 暗殺事件 以前의) 元來의 모습으로 되찾고 싶다」고 말했으며 또 外務省은 「從來의 路線에 따라 對韓 經濟協力を 實施할 方針」임을 1980年 여름에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側은 이와 같은 日本側의 생각과는 달리 「새次元에서의 韓日關係」의 構築을 希求하고 從來의 韓日經濟協力 路線을 크게 벗어나는 巨額의 借款을 要求해 왔다.

그러면 그 理由는 어디에 있었을까. 日本의 韓半島政策이라는 여기서의 主題와는 조금 빗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매우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이점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3. 韓國의 「安保經協」論

韓國側이 60億弗의 政府借款 要請을 正式으로 日本에 傳

達한 것은 1981年 8月 韓日 外相會談때 였으나 非公式의 으로는 1981年 봄쯤부터 日本側에 대하여 提示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確實히 이 時期부터 韓國에서는 「韓日關係의 再定立」과 「安全保障 次元에서의 經濟協力」의 主張이 나 돌고 있었으며, 이點으로서도 全斗煥政權이 對日 60億弗 借款要求의 뜻을 굳힌 것은 1981年 초봄 以來의 일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當初에 日本政府는 그 갑작스럽고 巨額의 借款要求에 驚愕을 禁치 못했었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60億弗 要請의 根據가 曖昧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無理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要請理由」에 관해서는 아직도 分明하지 않은 部分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韓國側의 「論理」에 관해서는 「世界 平和·東北亞 그리고 새로운 韓日關係-韓日安保經協의 背景」이라는 小冊子를 通하여 大충 알 수가 있다.

이 小冊子는 35面 程度의 팜플렛이긴 하지만 韓國側이 내세워 온 「對日安保經協 要請」의 모든 것이 網羅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發行은 「韓日問題研究所」로 되어 있지만 實際는 政府關係者의 執筆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政府見解를 代辨한 것으로써 注目을 끌었다.

發行日은 1981年 9月 8日로 먼저 韓日閣僚會議 前에 韓

國의 各 매스컴의 高位 擔當者들에게 配布되고 이어서 韓日議員聯盟 總會에 參席하는 韓國側 議員 全員에게 配布되어 對日要求의 基礎가 되는 텍스트가 되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構成은,

- ① 東北亞의 安保情勢
- ② 日本의 國際政治上的 姿勢
- ③ 韓日兩國의 새로운 關係
- ④ 「安保經協」을 拒否하는 日本의 몇가지 主張
- ⑤ 韓日의 「安保經協」과 東北亞

以上 5章으로 되어 있다.

먼저 第1章에서는 다음과 같은 論理가 展開되었다.

1980年代의 東北亞細亞의 情勢는 蘇聯의 膨脹主義的인 政策과 北韓의 軍事面에서의 對韓優位 및 南侵準備 完了등으로 形成되어 있다.

이에 대한 西方側의 對應은 「오타와頂上會談宣言」과 「美日共同聲明」에 明示되었다. 그와 같은 狀況下에서 美國은 對日 防衛力增強을 要請하고 있다. 韓國의 日本에 대한 「安保經協」要請은 오타와宣言등에서 日本이 同意한 原則의 具體的인 事例에 不過하다.

第2章은 日本의 「공짜安保」姿勢에 대한 非難이 展開된다. 日本은 이때까지 韓國이 千辛萬苦로 共產主義者들과의 對決에 國力을 消耗하고 있는 동안에 「無賃乘車 安保」를 누

리고 經濟的 富를 蓄積해 왔다. 日本은 安全保障上의 國際的 責任을 될 수 있는 대로 回避하려 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한 同調」에 甚한 알레르기反應을 보이기 까지에 이르렀다. 또 日本은 눈앞의 利益을 얻기 爲해서는 北韓과의 經濟交流도 서슴치 않으며 시베리아 開發에 參加하려는 誘惑에 눈이 멀어져 있다.

第3章에서는 새로운 韓國關係의 構築을 爲한 日本의 役割이 提起된다.

東北아세아의 安全保障上의 負擔을 韓日兩國이 分擔해야 하는 것은 自명한 理致이다. 그러나 韓國의 負擔은 그 國力에 比해 너무 過重하고, 反面 日本의 負擔은 너무도 가볍다.

日本에 있어서 安保戰略과 經濟政策을 連結시킨다는 「오타와 宣言」의 具體的 適用이 곧 東北아세아 安保와 關聯되는 韓日經濟協力인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日本은 故意로 安保와 經濟協力を 分離시켜 安保經協을 拒否한다는 것은 「安保白痴的」安易性에서 脫皮할 수 없다는 發惡에 지나지 않는다. 日本은 이와 같은 前時代的 意識에서 눈을 뜰 必要가 있다.

第4章에서는 日本側의 「安保經協」에 대한 論駁에의 批判이다.

韓國이 主張하는 韓日 「共同運命體」論은 共產主義에 대한 安全保障上의 「戰略共同體」를 意味하는 것이다.

또 「要塞」論도 마찬가지로 戰略的 概念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韓國이건 日本이건 戰爭이 터졌을 경우에 韓日은 다 같이 前方基地 或은 後方基地로서의 役割을 自動적으로 맡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한 韓日兩國의 地政學的 運命에 대한 基本認識에서 出發한 것이 「要塞」論인 것이다. 「同一國土」論도 戰爭이 일어나면 다 함께 이에 말려 들어 戰禍를 입는 度가 同一國土인 것과 同一하다는 뜻인 것이다.

이것 亦是 戰爭때에 國境을 방패삼아 「나는 모른다」는 式의 態度는 通하지 않는다 라는 戰略的 認識을 表現하고 있다.

끝章에서는 먼저 日本이 韓國과의 「安保經協」에 應하지 않을 수 없는 必要性이 다시 強調되고, 이어 韓日兩國間的 貿易 不均衡에 대한 是正이 要求된다. 끝으로 結論이라 할 수 있는 「安保經協 60億弗의 根據」가 提示되어 있다. 即 北韓이 優位에 서 있는 現在의 軍事力의 不均衡을, 南北均衡의 段階에까지 到達하기 爲해서는 238億弗이 必要하다고 되어 있다.

그中 88億弗은 韓國이 充當한다고 하고 不足資金 150億弗의 3分の2 程度—100億弗을 日本이 負擔해 주어야 한다. 그 內譯으로 政府公共借款 60億弗(5年間)은 ①東北아세아가 共產化될 때의 代價를 생각한다면 값싼 것이며, ②또 韓國의 對日 累積貿易赤字의 4分の1程度 밖에 되지 않으며,

또 日本의 對韓 貿易黑字의 2年分에 不過하다. 그리고 每年 12億弗의 公共借款은 ①日本의 GNP의 0.18%에 지나지 않으며, ②美軍 1個師團의 外國駐屯費 1年分程度의 것으로서 日本이 누리고 있는 東北아세아의 安全이라는 莫大한 恩惠에 比하면 너무도 적은 것이다.

4. 「防衛費의 代行」을 拒否한 日本

以上에 보아 온 바로는 當初 韓國側은 「安保經協」의 이름으로 「防衛費代行」을 日本에 要請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根據는 매우 曖昧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北韓의 軍事力을 韓國이 뒤쫓기 爲하여 238億弗이 必要하다고 主張하지만 그 數字의 根據는 一切 提示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日本에게 負擔해 줄 것을 要求하는 100億弗이라는 數字의 根據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83年3月9日 美下院 外交問題委員會에서 證言에 나선 토머스·P·스미드國務省次官補 代理(東아세아·太平洋問題擔當)는 韓國의 軍備改善計劃의 코스트를 今後 5年間에 約103億弗로 보고 있다. 이 點에서 본다면 韓國側이 提示한 238億弗이라는 數字는 根據가 曖昧하다기 보다는 터무니 없는 算定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日本으로부터의 借款이 東北아세아 共產化의 代價로 본다면 값싼 것이

며 對日貿易의 累積赤字額의 4分の1程度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서투른 論理의 展開도 當然히 日本이 받아 들일 수 있는 性質의 것은 아니었다.

또 韓國側은 「오타와宣言」과 「美日共同聲明」에 있어서 日本이 同意한 原則—即 「東西 經濟關係가 西方諸國의 政治·安全保障上의 利益에 대하여 가지는 重要性」과 「日本政府가 世界の 平和와 安全維持를 爲하여 重要な 地域에 대한 援助를 強化해 나간다」고 하는 具體的인 適用의 例가 韓日安保經協이라고 매번 主張해 왔다. 그러나 「오타와 宣言」을 보면 分明하겠지만 先進諸國이 同意한 原則은 「東西經濟關係가 政治·安全保障上의 重要な 意味를 가진다」는 것이지 韓日關係와 같은 西方側 諸國間의 關係에 있어서의 經濟와 安保의 關聯을 말한 것은 아닌 것이다.

「레이건·鈴木 美·日共同聲明」도 「開發途上國에 대한 政府開發援助의 擴充」에 대해서 日本이 約束한 것이지 決코 韓國과 같은 中進國을 主된 對象國으로서 想定한 것은 아니다.

이 點에 있어서도 日本이 韓國의 要請을 그대로 受諾할 수 없었던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結局 日本은 從來의 基本方針을 크게 바꾸지 않고 ①軍事的 性格의 經濟援助에는 應할 수 없다. ②巨額의 經濟援

助도 할 수 없다. ③援助方式도 프로젝트別로 當年度 積立方式을 取한다-라는 立場을 거의 貫徹했다고 할 수 있다.

1983年1月 中曾根首相의 訪韓으로 妥結된 韓日經濟協力交渉은 當初 韓國이 主張한 「安保經協」이라는 性格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 金額도 總額 40億弗(圓借款 18億5千萬弗, 輸銀融資 21億千萬弗)로 擘었다. 그것은 多額이긴 하지만 當初 韓國側이 要求한 100億弗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圓借款分은 年積立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別로 每年 協議해서 金額을 決定하기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民生部門을 中心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한 借款供與로 決定된 것이었다.

初年度인 1982年分の 圓借款 問題는 1983年4月28日에 451億圓으로 正式 決定을 보았다. 그 對象 프로젝트의 內譯은 첫째, 多目的 댐 建設에 204億圓(慶南 陝川地方에 建設하는 洪水防止와 水力發電, 用水確保 目的의 댐)

둘째, 醫療裝備 擴充에 54億圓(서울大學校에 小兒專門病院을 짓고 教育·研究·診療등 綜合적으로 活用한다)

셋째, 서울市の 下水處理場 建設에 115億圓. 그리고 서울, 晉州, 釜山の 上水道 擴張事業에 78億圓이었다.

이와 같이 韓日經濟協力 問題에 대하여 日本은 끈질긴 強硬交涉을 進行하여 最終的으로는 韓國側의 要求를 누그러지게 하는데 成功하였다. 거기에는 韓國에 대해 지나치게 그리고 軍事的으로 關與하는 것을 避하고 安定的인 現狀維持가 바람직하다는 政策 基調가 如實히 表出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援助金額이 韓國側의 當初 要求와 동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40億弗이나 되는 巨額에 達했다는 것도 고전하고 있는 韓國經濟에 「強力한 坎拑劑」를 投與하고 그에 따라 韓半島의 安定을 確保하려는 考慮의 表現으로써 捕捉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中曾根政權의 對韓半島政策

그런데 中曾根政權의 登場으로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은 一變했다고들 말한다. 確實히 日本首相으로서 처음으로 韓國을 公式訪問한 것은 그것이 訪美에 앞선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中曾根政權의 「韓國 重視」姿勢의 印象을 주는 것이었다. 또 韓國을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장 親近한 나라」로 삼고 싶다는 中曾根首相의 希望表明이 韓國에 대한 깊은 Commitment를 意味한다는 觀測을 자아

낸 것도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點은 말하자면 中曾根 外交의 「스타일」에 그치는 것이며 그 바탕에 있어서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에는 큰 變化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은 「中曾根·全斗煥 韓日 共同聲明」에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首相과 大統領은 最近의 國際情勢에 관하여 隔意없는 意見交換을 하고, 特히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定의 維持가 日本을 包含한 東亞세아의 平和와 安定에 緊要하다는 點에 대하여 認識을 함께 하면서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 및 繁榮을 爲하여 앞으로도 서로 努力해 나갈 것을 確認하였다. 首相은 全大統領이 提議한 「南北 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開催提案,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등의 對話努力을 支持하고, 韓半島를 둘러싼 現在의 峻嚴한 情勢下에서 韓國의 防衛努力이 이와 같은 對話努力과 함께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寄與하고 있는 것을 높이 評價하였다. (傍點 引用句, 1983年1月12日 『韓日共同聲明』 第4項)

이와 같이 「韓日共同聲明」은 「韓國의 安全」이 아닌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定」이 緊要하다고 했다.

그것은 1969年10月の 佐藤·닉슨共同聲明에서 表記된 所

謂 <韓國條項> -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
-과 比較해서 分明히 格下된 것이며 最近의 美日共同聲
明에서 보인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關心 表明을 踏襲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1979年 5月의 太平·카터聲明은 「韓半島에 있
어서의 平和와 安定의 維持가 日本을 包含한 東아세아의 平
和와 安全에 重要하다는 것을 再確認하였다」고 했으며 또
1981年 5月의 鈴木·레이건共同聲明은 「日本을 包含한 東
아세아의 平和와 安全에 重要하다는 것으로써 韓半島에 있
어서의 平和維持를 促進하는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고 말했다.

日本은 最近들어 一貫하여 「韓半島의 安定」에 利益을 發
見하고 있으며 「韓國의 安全」에 깊이 介入하려는 意思가
없음은 分明하다 하겠다. 그것은 中曾根政權에 있어서도 變
化가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中曾根·全共同聲明이 韓國의
防衛努力을 評價함에 있어서 일부러 韓國의 「對話努力과 아
울러」라고 添記한 것도 그 點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中曾權政權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韓 間의
밸런스를 重視하며 安定을 希求하고 있다고 看做할 수 있
는 證左는 그 對北韓政策의 變化에도 보인다.

中曾根 政權은 1983年 5月에 開催된 아세아·아프리카 法律諮問委員會 第23次 會談에 北韓代表團의 入國을 許容한 것이다. 政府가 直接 關係하는 會議에 國交가 없는 北韓으로부터 事實上的 政府代表를 맞아 들인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外務省은 「앞으로도 國際會議를 效果的으로 開催하기 爲하여 必要하다면 入國을 認定하는 것이 오히려 妥當하다」고 말하고 國際會議에의 參席이라면 北韓으로부터의 入國을 許容하는 것을 通例로 삼을 方針을 分明히 하였다. 그리고 5月 17日에 열린 安倍外相 리셉션에도 北韓代表를 招請하여 安倍外相은 日本의 外務大臣으로는 처음으로 北韓代表와 接觸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中曾根政權이 韓國과 北韓에 대한 關係를 或種의 均衡을 取하는 것으로 해보겠다는 政策考慮의 表現이었다고 解釋할 수 있다.

어쨌든 中曾根政權의 對韓半島 政策이 從來대로 「安定」을 가장 重要視하여 韓國에 대한 지나친 介入을 避하려는 데 腐心하고 있는 것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基調는 今後에도 持續될 것으로 생각된다.

結局 앞으로 當分間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은 「韓半島의 現

狀維持」라고 하는 큰 틀(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V. 中共의 對 韓半島 政策

1. 概 況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中·蘇 兩勢力의 接點에 位置하여 歴史的으로 兩國의 影響을 크게 받아왔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後의 冷戰下에서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되고 南部의 大韓民國이 美國과의 關係를 強化시키자 北部의 北韓은 스스로를 防衛하기 위하여서도 中·蘇 兩國에 依存을 強化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中共으로서도 韓半島의 緊張이나 혹은 緊張緩和가 自國의 安全에 直接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北韓과는 1,300 km나 되는 긴 國境線을 가지고 있어 基本的으로는 거의 一貫하여 友好的 關係를 維持하기에 힘써 왔다. 다만 中共이 文化大革命 등으로 內政에 奔忙하였다던가 中·蘇 對立을 激化시키기도 하여 一時的으로 北韓과의 關係를 疎忽히 한 時期가 있었고, 北韓 역시 蘇聯에 대한 配慮때문에 對中共 接近을 抑制한 적도 있었다.

여기서 第2次 世界大戰後의 中·朝關係를 概括해 보면 新中國의 建國(1949年10月1日) 前後는 아직 外交的인 餘力도 없고 影響力은 작았다.

그러나 韓國戰爭(1950年6月25日~1953年7月27日) 때

에는 人民志願軍을 派兵하여 함께 싸워 주었으며 戰後復舊에 대한 協力を 통하여 關係를 緊密化시켰다.

1958年의 大躍進政策과 그후 表面化된 中·蘇紛爭의 初期에도 北韓은 中共支持의 姿勢를 鮮明히 하였다.

그런데 蘇聯에 브레즈네프政權이 登場(1964年10月14日)한 뒤로 北韓은 中·蘇 等距離의 自主外交로 돌아가 文革期에는 中共批判으로 轉變하였다.

1970年4月 周恩來首相의 12年만의 北韓訪問을 契機로 응어리는 풀리고 그 以後는 華國鋒, 鄧小平 = 胡耀邦時代를 一貫하여 友好的인 關係가 持續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共·北韓關係는 必然的으로 中共과 韓國과의 關係를 敵對關係로 만들게 되었다.

6.25 戰爭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그 以後도 中共은 韓半島 問題에서 항상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韓國과의 接觸은 一切 없었다. 다만 한국이 共產圈에 대해 門戶를 開放하고 中共에 대한 接近의 姿勢를 보인 뒤로 中共의 文革後 開放體制와 발 맞추어 스포츠 文化의 交流가 있게 되었다.

특히 被拉된 中共民航機가 韓國에 着陸(1983年5月5日)했을 때에는 中共·韓國의 直接交涉에 의하여 事態의 收拾이 進行되었었다.

2. 第2次 世界大戰後의 中共 北韓 關係

가. 新中國의 成立前後

日本の 韓半島 支配期에 金日成과 崔庸健등이 中國, 特히 東北地區(舊 滿州)에서 抗日獨立運動을 展開하고 中國 共產黨은 이를 支援해 왔다. 다만 2次大戰 終了直後 中共은 아직 政權을 잡지 못하였고 너무 弱體였기 때문에 北韓 政權의 樹立은 主로 蘇聯勢力의 支援下에 進行되었다.

中共은 平壤에 軍辯事處와 滿洲通商代表 등을 常駐시키고 建國에 앞서 成立된 東北人民政府가 北韓과의 사이에 中·朝 郵便協定, 中·朝 電報通信協定을 締結(1949年 2月 25日)할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新中國이 成立되자 北韓은 即時 이를 正式承認하고 相互 大使를 交換하였으며 1950年 1月에는 郵便, 通信電話協定을 締結하였다. 그러나 그밖에 注目할만한 交流는 없었다.

나. 韓國戰爭

韓國戰爭이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中共은 事態의 平和的 解決을 呼訴하였다.

그러나 美軍을 中心으로 한 UN軍이 38線을 넘고 中共 國境에까지 接近해 오자 「中國의 安全에 대한 重大한 威脅」으로 判斷하고 抗美援朝·祖國防衛의 人民志願軍을 組織

派遣하여 北韓과 함께 싸웠다. 出動兵力은 最高 50萬 以上으로 推定되며 1950年 10月 25日의 參戰에서 1953年 7月 27日의 休戰까지 計 109萬餘의 敵軍을 殺傷 또는 捕虜로 하였다(1953年 9月 12日字 「中國人民志願軍의 抗美援朝 活動에 관한 報告」에 의함)는 것이다.

建國後 얼마 안되어 더구나 國內建設에 餘念이 없었던 中共이 韓國戰爭에 介入하게 된 動機는 1950年 11月 4日의 中國共產黨 등 各黨派聯合宣言인 「朝鮮은 小國에 지나지 않지만 戰略的 地位는 매우 重要하다. 더구나 美國의 朝鮮戰略의 主目的은 中國侵略에 있다. 中國의 朝鮮援助는 道義上의 責任 뿐만 아니라 中國人民의 切實한 利害에 關聯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文章에 端的으로 表現되어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中共의 支援姿勢는 積極的이었으며, 兵力投入外에도 戰爭中에 5,700萬弗의 無償援助를 해주었다.

休戰協定 成立後인 1953年 11月 12日 金日成이 北京을 訪問하여 中共과의 사이에 經濟文化協力協定을 締結(1953年 11月 23日)하고, 兩國은 可能한 限 經濟, 技術援助를 擴大하며,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經濟, 技術의 協力을 實施하고, 文化交流를 促進하도록 努力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同時에 發表된 共同聲明에서 中共은 ① 戰爭開始로부터 1953年 末까지의 借款 모두를 拋棄한다. ② 1954年에서부터 1957年까지에 8兆元(日貨 1,143億圓)의 復舊費를 供與한다는 것

을 밝혔다.

이 聲明에 立脚하여 1956年까지에 綿花, 石炭, 建築資材 등이 提供되고, 北韓에 머물러 있던 中共 兵力은 鐵道の 復舊와 甬, 道路, 住宅 등의 建設에 投入되었다.

1958年2月5日 北韓이 韓半島에서 모든 外國軍의 完全 撤收를 要請하자 中共은 이 撤收에 대하여 討議할 用意가 있다고 聲明하고 周恩來首相의 平壤訪問에 따른 同年 2月 19日의 共同聲明에서 同年末까지의 撤收를 公表했으며 실제로 10月26日까지 25萬名을 完全 撤收시켰다.

金日成은 撤收하는 中共 志願軍들 앞에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흘린 피는 朝鮮人民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年동안에 朝鮮人民과 中國 人民志願軍의 共同鬪爭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友好連帶의 싹을 기르는 絶好의 機會를 주었습니다」고 演說하였다.

다. 大躍進과 中·蘇紛爭

韓國戰爭을 契機로 하여 中共과 北韓은 그 緊密의 度를 더해 交流는 增大되었다. 1957年12月의 科學技術 協力協定, 1958年5月의 通商協定, 1958年9月의 長期借款協定 등이 잇달아 締結되었다.

1958年10月 北京에서 中·朝 友好協會가 結成되었으며, 1959年4月에는 同年 2月의 航空運輸協定에 立脚하여 北

京 - 平壤間의 定期航路가 開設되었다.

또 1958年 11月과 12月 2次에 걸쳐 中共을 訪問한 金日成은 周恩來首相과의 共同聲明에서 ① 現在の 國際情勢에 관하여 雙方의 見解는 完全히 一致하였다. ② 今後 友好協力關係를 더욱 發展시킨다. ③ 蘇聯을 그 長으로 하는 社會主義陣營과의 連帶를 強化한다라는 點을 確認하였다.

또 金日成은 때마침 展開中에 있던 中共의 大躍進과 人民公社 運動등을 觀察하고 이들에 共鳴하고, 歸國後에는 千里馬運動을 展開하고 雜多한 農業協同團體들의 合併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이들 政策은 自國의 農工業問題의 解決에 直結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蘇聯 흐루시초프首相의 人民公社에 대한 批判 등으로 인해 1960年부터 호지부지해졌다.

1961年의 5.16 革命에 의하여 한국에 軍事政權이 登場하자 北韓은 安全保障策의 強化가 必要하다 하여 金日成이 모스크바와 北京을 訪問하고 蘇聯과는 1961年 7月 6日에, 中共과는 同年 7月 11日에 各各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였다. 그 內容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蘇聯과의 條約期間이 10年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中共과의 條約은 「雙方이 修正 또는 破棄에 관하여 合意하지 않는 限 有效」 하다고 되어 있다.

또 條約의 義務 發動의 機會를 蘇聯과의 條約이 「武力

侵略을 받아 戰爭狀態에 들어갔을 때는」으로 되어 있으나 中共과의 關係에서는 그밖에 「雙方은 共同으로 一切의 措置를 취하며 어느 一方에 대한 어떠한 나라의 侵略도 防止한다」는 條項이 添加되어 있다.

따라서 對中共關係가 보다 密接한 利害關係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2年 가을부터 北韓의 中共에 대한 接近은 急速히 進行되었다.

1962年 10月 中共이 印度와의 國境에 攻撃을 加하여 맥 마흔라인을 突破하고 라그다地區를 占領하게 되자, 蘇聯은 表面上으로는 中立을 지키는 척하면서 뒷전에서 印度에 헬리콥터와 輸送機 등을 보내고 印度를 支援한데 반하여 北韓은 中共을 全幅적으로 支持하고 나섰다.

또 10월에 蘇聯이 큐바로부터의 미사일 撤收를 決定하자 北韓은 中共과 발 맞추어 蘇聯의 敗北主義를 非難하였다.

그리고 또 1963年 7月 북한은 蘇聯이 部分核禁條約에 調印하자 「蘇聯의 眞意는 中國의 核兵器 保有를 沮止하려는데 있다」고 批判함으로써 中共에 同調하였다.

이러한 中·北韓關係를 象徴이라도 하듯이 崔庸健 最高人民會議委員長이 1963年 6月 中共을 訪問하고, 劉少奇 國家主席이 1963年 9月 北韓을 訪問하여, 함께 帝國主義와

修正主義에 反對하는 鬪爭의 強化를 다짐하였다.

中共과 北韓은 1965年 6月에 調印된 韓·日基本條約에 대해서도 함께 非難하였다.

라. 文 革 期

브레즈네프政權이 登場한 1964年 10月부터 北韓은 對蘇 態度를 軟化시켰다.

새 政權에 祝電을 보냈으며 1965年 2月에는 越南을 訪問한 코시긴首相의 歸路에, 그를 平壤으로 招請하였다.

蘇聯은 1962年以後 中斷되어 왔던 北韓에 대한 軍事·經濟援助를 復活시켰다. 그리고 1966年 2月에 兩國은 長期 經濟協定을 締結하였다.

이와 같은 變化의 背景이 된 것은 美國의 韓國軍에 대한 最新裝備의 供與와 越南戰爭의 激化에 따른 아세아情勢의 不安定化 등으로 인하여 北韓이 軍事·經濟面의 近代化를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된 때문이라고 한다.

中共은 그간 蘇聯의 對北 援助停止分の 뒷바라지를 할 餘裕는 없었다.

以上과 같이 中·蘇 對立下에서의 蘇聯과 北韓의 接近은 必然的으로 中共·北韓의 關係를 冷却시켰다.

北韓은 1966年 8月 12日字 로동신문에서 自主路線을 強調하면서 中共을 教條主義라고 批判하였다. 韓國戰爭 支援의 代

價로서 中共이 白頭山 附近의 250 km의 割讓을 要求했다는 報道(「인디언·익스프레스」 1965年7月20日字)가 나돌 程度였다.

1967年에 들어 紅衛兵에 의한 大字報(壁新聞)에 北韓 批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은 흐루시초프 修正主義의 弟子이다」, 「金日成首相이 陸軍에 逮捕되었다」 등으로서 當時 首相 周恩來가 大字報의 內容은 事實無根이라고 否定했는데도 불구하고 朝鮮中央通信은 同年 2月26日 “참을 수 없는 中傷”이라고 抗議하였다.

1969年5月18日 中共과 北韓이 1968年3月과 12月の 兩次에 걸쳐 國境에서 銃擊戰을 벌였으며 그 結果로 國境이 封鎖되었다는 報道(UPI)도 있었다. 文化革命에 寧日이 없는 탓도 있었겠지만 中共은 1968年9月 北韓의 建國20周年에 代表團을 派遣하지 않았다.

마. 文革後의 關係改善

1969年4月の 中共9全大會에서(文革이 일단 끝을 맺은 뒤로부터) 中共과 北韓 사이에 接近의 氣運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同年 7月の 닉슨·독트린이 日本의 軍事力 增強을 示唆하고 닉슨·佐藤 共同聲明이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強調했으며 또 1970年6月の 美·日安保

條約의 自動延長이 中共과 北韓에게 共通의 警戒心を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선 蘇聯軍의 체코侵攻이 北韓에게 對中共 冷却을 反省시키기도 했던 것 같다.

1970年4월에 北韓을 訪問한 周恩來首相은 共同聲明에서 ① 中·朝間의 血盟關係를 確認, ② 反帝統一戰線의 結成, 反美鬭爭에서의 協力, ③ 日帝, 美帝를 共同的 敵으로 한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1971年7月9日 朝鮮軍事停戰委員會에 中共은 5年만에 代表를 參席시켰으며 同年 5월에 中共·北韓 經濟協力協定 및 원조공여협정이 그리고 9월에는 中共의 對北韓 無償軍事援助協定이 調印되었다.

1972年2月 닉슨의 中共訪問은 北韓을 唐慌시킨 것 같다. 北韓은 일단 美·中共 接近을 「美國의 中國封鎖政策의 破産」이라고 評價는 했지만 이때까지의 反帝共同鬭爭路線이 空疎化된 것은 否定할 수 없었다.

그러나 北韓은 그것으로 인한 蘇聯에의 傾斜를 強化시키지 않고 그 傾斜에 따르는 損失을 考慮했음인지 오히려 非同盟 中立外交를 摸索하기 시작하였다.

1972年12월에 採擇된 憲法에서 처음으로 國家의 自主獨立을 明文化시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한편 中共은 南北韓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다짐한 1972年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자 「아세아와 世界의 情勢

發展에 積極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다」고 評價하고, 1973年 6月 金日成의 「祖國統一 5大綱領」을 支持하는 등, 平和 共存路線을 推進하였다.

1975年 4月 14年만에 中共을 訪問한 金日成은 18日밤의 歡迎宴에서 「일단 南朝鮮에 革命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積極的으로 南朝鮮 人民을 支援할 것이다. 만약 敵이 戰爭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戰爭으로써 斷乎히 이에 答할 것이다. 이 戰爭에서 잃는 것은 軍事境界線이요 얻는 것은 祖國統一이다」는 強硬한 演說을 하였다.

때마침 越南情勢가 急進展하여 사이공이 陷落된 直後였기에 中共側의 對應이 注目되었지만 4月 26日의 共同聲明은 「中國側은 美帝가 두개의 朝鮮政策을 推進함으로써 分裂을 固定化, 永久化시키려 하는 것을 糾彈한다」고 非難하는 것으로 그치고 韓半島 問題는 어디까지나 自主的, 平和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하였다.

바. 華國鋒에서 鄧小平으로

1976年 9月 毛澤東 死亡에 대한 金日成의 弔電, 同年 10月 華國鋒 新主席 就任에 대한 祝電을 中共의 人民日報는 제일 먼저 掲載하여 中共이 北韓을 重視하고 있음을 表現하였다.

또 華國鋒主席은 그의 첫 外國나들이를 北韓으로 擇하고

1978年5月5일부터 10일까지 北韓을 訪問하였다.

中共의 最高首腦가 北韓을 訪問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金日成과의 會談內容은 發表되지 않았다. 그러나 演說을 통하여 駐韓美軍의 撤收와 UN軍 司令部의 解體를 要求하고 南北韓의 交叉承認과 UN同時加入에 反對하면서 金日成의 統一原則을 支持하였다.

그뒤에 鄧小平副主席이 9月9日 北韓 建國 30周年記念式典에 參席했고, 1979年5月에는 鄧穎超 全人代 副委員長이 北韓을 訪問했으며, 또 1980년5월 유고의 티토大統領 葬儀에 參席했던 華國鋒主席이 베오그라드에서 金日成과 會談하는 등, 交流를 深化시켜 갔다.

그리고 또 中共은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대한 期待를 더욱 크게 했던 것으로 華國鋒主席은 1980年6월에 訪中한 北韓의 白鶴林 人民武力部 副部長에게 「中國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支持하며 統一은 반드시 成就될 것이다」고 말하고, 1980年7月14日, 全人代 常務委가 北韓 最高人民會議에 보낸 書翰에서 ① 駐韓美軍과 그 基地의 撤去, ②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에의 代替, ③ 自主的 平和的 統一의 支持를 強調하고 있다.

鄧小平이 1979年2月 日本에 갔을 때 「北韓의 南侵은 없을 것」이라고 斷言한 것은 北韓의 意向을 알고서 한 말일 것이며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80年1月 「美國

은 平和協定 締結을 위해 北韓과 接觸해야 하며 中國은 이 제까지 여러번 北韓과 接觸하도록 美國에 勸誘해 왔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北韓도 한때 그 딱딱함을 버리고 金日成은 1979年 5月 日本 久野忠治議員에게 「日·中 平和條約과 美·中 國交正常化는 아세아와 世界の 平和에 有益하다」고 말했으며, 1980年 9月에는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면 中·蘇와의 軍事同盟(1961年에 締結한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을 말함)은 解消시키겠다」고까지 말하였다.

中共의 柔軟性에 대해서 홀부르크 美國務省次官補가 1980年 1月 「中共은 蘇聯과의 競爭때문에 公式적으로는 北韓의 原則的 立場을 支持하면서도 실제로는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위해 北韓에 影響力을 行使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中共이 近代化를 推進하는데 있어 平和로운 國際環境을 바라고 있는 것은 事實이며 蘇聯勢力의 擴大와 日本의 急激한 再軍備를 沮止하기 위해서도 中共은 駐韓美軍의 撤收에 대해 앞으로도 消極的인 態度밖엔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觀測이 강해지고 있다.

1981年의 中共·北韓 關係에서는 1月의 李鍾玉 總理의 中共訪問과 12月의 趙紫陽總理의 北韓訪問이 눈에 띄었다. 李鍾玉은 兩國關係의 強化發展을 다짐했지만 中·蘇關係나 國

際問題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人民日報가 李鍾玉 歡迎의 社說을 실지 않은 일, 그리고 北韓이 中共·越南 對立에 대한 態度를 保留했던 일도 있었고 해서 兩國關係에 不協和音을 느끼는 傾向도 많았다.

3. 中共과 韓國

中共은 韓國과의 公式的關係를 갖고 있지 않다. 더우기 建國初期부터 1970年代까지에는 黃海를 사이에 두고 서로 對하고 있는 位置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交流도 없이 韓半島 全體問題를 論할 機會時에나 韓國을 言及할 따름이었다.

그것도 北韓을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政府라는 立場에서 韓國을 美國의 앞잡이로 보고 다만 「南朝鮮」이라고 表現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美國은 休戰協定을 破棄하고 南朝鮮을 美國의 原子戰爭基地로 바꾸려 하고 있다」(1957年6月), 「美國은 南朝鮮에 駐屯하고 있는 軍隊와 모든 兵器裝備를 撤去하고, 朴正熙政權에 대한 軍事援助를 즉각 中止해야 한다」(1974年6月) 등.

그러나 닉슨의 中共訪問(1972年2月)으로 아세아情勢가 크게 變化함에 따라 韓國이 北韓과 自主的 平和的 統一을 提唱한 共同聲明(同年7月)을 發表하고, 共產圈諸國에 門戶를 開放한다는 朴正熙大統領의 外交聲明(1973年6

月)을 발표하게 되자 中共의 對應에도 얼마간의 變化를 보였다.

金日成의 中共訪問에 따른 1975年4月 中共·北韓 共同聲明은 「中國側은 朴正熙政權이 南北共同聲明을 짓밟고 南朝鮮人民에 대하여 靑소적 彈壓에 拍車를 가하며, 朝鮮半島의 緊張을 실새없이 激化시키고 있는 것을 糾彈한다」, 「中國側은 南朝鮮의 各階層 人民이 社會의 民主化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實現을 위하여 推進하고 있는 正義의 鬭爭을 斷乎히 支持한다」고 韓國에 대해 非難과 呼訴를 並行하고 있었다.

이것을 맞받듯이 野黨인 新民黨首 金泳三氏는 同年 8月의 記者會見에서 對中共關係의 改善必要性을 強調하였다.

文革後의 中共이 近代化 推進과 아울러 體制開放을 내세우게 되자 한국과의 間接的인 人的, 物的 交流가 눈에 띄게 되었다. 國際會議나 스포츠競技에서의 接觸과 第3國을 통한 貿易이 바로 그것이다. 주로 香港이나 日本을 통하여 中共의 石炭, 豚毛, 고추 등이 한국으로 가고 한국의 工業製品이 中共에 들어갔다.

1979年1月에 美國을 訪問한 鄧小平 副主席이 카터大統領으로부터 中共·韓國의 經濟交流를 勸誘받고 「現在로서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貿易量은 增加하여 1980年 前半 6個月동안에만 總2千萬弗에 달했다.

美·中共首腦 사이에서 中共·韓國間 交流가 公式的으로 取扱
된 事實 그 自體가 兩國關係의 變化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面에서는 中共이 1979年6月10日에서부터 杭州에서
열린 世界배드민턴大會에의 參加招請狀을 한국에 보냈다. 韓
國側이 在日本 中共大使館에서 入國비자를 申請하자 中共側
은 그 書類를 接受했을 뿐 비자 發給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措置는 國際스포츠組織의 決定에 따라 배드민턴協會
로서는 入國을 許可했었지만 現實的으로는 北韓의 立場을 考
慮하여 拒否하는 形式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同年 7月3日 外交部 代辯人은 「中國으로서는 한국과
스포츠 國際交流 以上の 2國間 關係를 맺는다는 것은 생
각하고 있지 않으며, 關係改善은 時機尙우라 생각한다」고 말
했다.

1980年1월에 中共을 訪問한 홀부르크 美國務省 次官補가
歸國途中에 한국을 訪問할 計劃을 안 中共首腦는 金泳三 新
民黨首와 金鍾泌 共和黨總裁에게 보내는 問安의 메시지를 부
탁하였다. 이를 전해주면서 同次官補는 1月15日 金泳三黨首
에게 「中共은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오히려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고 말
했다.

그러나 同年 4月以後에 學生데모가 激化되고 光州事件이

發生하자 中共은 北韓의 韓國非難에 同調하는 姿勢를 強하게 비쳤다.

1980年 11月 8日의 人民日報가 「困難 거듭되는 南朝鮮 經濟」라는 題目下에 珍奇하게도 韓國經濟를 取扱하고 아울러 金大中 前大統領候補를 「人物」로서 紹介한 것은 中共의 한국에 대한 關心의 強化를 示唆한 것이라 하겠다.

1981年初 서울에서 열린 UN主催의 海洋法會議에 2名의 中共인이 參席하였다. 그중 한사람은 美國에 滯在中인 學者로서 中共旅券으로써 첫 韓國나들이를 한 사람이 되었다. 9月末의 世界保健機構(WHO) 西太平洋地域 會議에는 마닐라에 있는 WHO事務所에 所屬된 中共인 醫師가 參席했다. 그리고 中共에 살고 있는 韓國인의 一時歸國도 8月과 11월에 이루어졌다. 다만 12月 18日 서울에서 열린 아세아野球聯盟 總會에서 中共의 加入은 認定되었지만 中共代表는 入國直前に 그 參席을 保留하였다.

4. 1982年 以後의 中共·北韓關係

가. 首腦의 相互訪問

1982년에 들어서의 中共·北韓 交流는 6月 14日부터 23日까지의 耿飈 國防相을 團長으로 하는 中共 軍事代表團의 北韓訪問이 있었다.

表面上 目的은 親善友好로 되어 있지만 北韓人民軍의 內

紛으로 中共領內로 逃亡한 多數의 人民軍 幹部들의 取扱問題도 論議되었다는 觀測(統一日報, 6月30日字)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注目을 끈 것은 金日成의 7年半만의 中共 訪問과 그때 밝혀진 胡耀邦總書記 鄧小平副主席(當時)의 4月の 北韓訪問이었다.

金日成은 9月16日 特別列車로 北京에 들어가 그날밤 人民大會堂에서 열린 歡迎宴에 參席했다. 이 席上에서 胡耀邦總書記는 平和的 祖國統一에 대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支持하고 北韓이 自主獨立을 堅持하여 帝國主義, 支配主義, 植民地主義에 反對하고 非同盟運動을 發展시켰다고 評價한 다음 同時에 「今年 4월에 鄧小平同志와 나는 金日成同志의 招請으로 아름다운 貴國을 訪問했다」는 表現으로 秘密裡에 北韓을 訪問했었다는 것에 言及하였다.

胡耀邦 등의 北韓訪問에 관해서는 5月20日字 人民日報가 매마침 中共에 와 있는 北韓最高人民會議 代表團과 會見한 胡耀邦의 發言에서 「最近 이루어진 中國과 朝鮮首腦와의 會談을 즐겁게 回想하였다」고 抽象的으로 報道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確認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北韓 滯留는 4月26일부터 4月30일까지로서 ① 中國은 胡耀邦, 北韓은 金正日書記가 서로 後繼者의 紹介를 주고 받았다. ② 蘇聯의 브레즈네프書記長이 中·蘇 關係改善을 呼訴한 直後

인 만큼 앞으로의 世界戰略을 論議했었다는 것이 主目的이 아닌가고 觀測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은 17日 胡耀邦總書記, 趙紫陽總理와 會談하고 18日에서 23日까지 四川省 成都와 陝西省, 西安 등 地方을 旅行하였다. 成都에는 鄧小平이, 西安에는 胡耀邦總書記가 各各 同行하는 配慮를 할 程度였다.

金日成은 24日의 答禮宴에서 「討議한 모든 問題에서 見解가 完全히 一致하였다」고 말하고 25日 歸國하였다.

共同聲明은 發表되지 않고 會談內容도 알 수 없지만, 同行者의 職位등으로 미루어보아 單純히 國際情勢 뿐만 아니라 經濟協力과 北韓에의 軍事援助도 討議된 것 같다. 이를 前後하여 中共은 北韓에 MIG 21 戰鬥機 20 臺以上을 提供했다 (産經 9月 18日) 든가, 1 億弗의 經濟援助 (統一日報 9月 21日) 등이 보도되었다.

당연히 中共 12 全大會 (82.9)와 北韓 黨 6次大會 (80.10)에서 채택된 路線의 承認이나 86 아세아競技大會, 88 서울올림픽 參加問題도 다루어졌을 것이다.

나. 兩國關係의 緊密化

金日成의 中共訪問에 隨伴되어야 할 共同聲明이 發表되지 않은 일로 해서 한국에서는 그 成果를 疑問視하는 側도 있었다.(每日新聞, 9月 30日字)

그러나 關係의 緊密化는 相當한 進陟을 본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既述한 바와 같이 中共·北韓 關係는 1970年代以後 文革期의 冷却狀態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距離感은 남아 있었다. 北韓이 對美批判을 持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中共은 近代化 推進의 必要性 때문에 日本과 美國에 接近하고 非公式的이긴 하지만 韓國과의 貿易을 始作한 것이 그것이며 中共의 個人崇拜 批判도 北韓에게는 달가운 것이 못되었다.

1980年 유고에서의 金日成·브레즈네프會談, 總理 李鍾玉의 蘇聯共產黨大會 出席 등은 北韓의 蘇聯接近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은 金日成 招請에 앞서 香港을 통하는 韓國製品의 輸入을 一切 禁止시켰고(讀賣新聞, 9月3日夕刊) 金日成이 12全大會後 첫 賓客이었다는 것을 強調하였으며, 金日成은 21日 成都에서 「自主性を 堅持하고 自國의 實情에 맞는 路線과 政策을 實施해야만 비로소 革命에 勝利할 수 있다」고 演說함으로써 中共의 近代化路線을 認定하는 代價로 北韓의 立場도 尊重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中共이 南北韓의 平和統一을 바라면서도 「今後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發生할지라도 中國人民은 斷乎히 朝鮮人民의 陣

에 설 것이다」(胡耀邦總書記) 또는 「美國이 또 다시 戰爭을 일으킨다면 中國人民은 모든 面에서 朝鮮人民의 鬭爭을 支援할 것이다」(10月13日, 習仲勛 中國共產黨 政治局員)고 까지 北韓支持를 明確히 하고 있다.

中共이 北韓의 清津港을 經由하는 새로운 日·中共 貿易 航路를 開設(讀賣新聞, 1983年3月30日字)하게 된 것도 蘇聯이 羅津港을 使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興味있는 일이다.

다. 金正日의 中共訪問

1983年5月20日부터 25日까지 中共 吳學謙外相이 北韓을 訪問하였다. 그 意義에 대해서는 24日 宴會에서 「서로 狀況을 通報해 주고 兩國關係를 한층 더 發展시키는 일과 共同의 關心事가 되는 國際問題에 관하여 意見을 交換하였다」고 인사하고 있지만, 通報의 內容은 그 直前に 發生한 中共民航機의 拉致에 따른 中共·韓國 直接交涉 뿐만 아니라 金正日의 招請도 포함된 것 같다. 同 外相의 平壤滯留中인 21日字 人民日報가 金正日論文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主體思想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紹介한 것도 이러한 見解를 뒷받침해 준다.

金正日의 中共訪問을 確認한 것은 7月7日 北京放送으로서 胡耀邦은 이날 北韓 最高人民會議代表團과 만나서 「朝

鮮勞動黨의 主要한 指導者의 한사람인 金正日同志는 今年 6 月에 中國으로 內部訪問(招請에 의한 것이지만, 外部에 公表하지 않는 訪問)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金正日의 中共訪問을 公表함과 同時에 金正일이 金日成의 後繼者임을 諒解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發言이었다.

金正日是 6月2日부터 12日까지 中共에 滯留하면서 胡耀邦 總書記外에 鄧小平 등과 會談했다고 한다.

中共이 後繼者로서의 金正日에 대하여 言及한 것은 比較的 빨랐던 것으로 1981年10月24日 北京의 北韓大使館에서 열린 人民志願軍 參戰 31 周年記念 宴會에서 耿飈 國防相은 「金日成主席同志의 健康과 長壽를 위하여, 金正日秘書同志의 健康을 위하여」乾杯하고 있다. 1982年4月 胡耀邦 總書記一行의 秘密訪問이 金正日과의 會談을 그 目的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既述한 바와 같으며 10月25日에 와서 放映된 當時의 狀況(中共의 中央TV放送)에서 보면 金正日是 平壤驛頭에서 鄧小平과 굳은 握手를 하고 胡耀邦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고 있다.

단지 中共은 文革에 대한 反省에서 個人崇拜의 否定 「부르조아社會에서도 封建主義의 終身制와 後繼者 指定의 制度를 버렸는데 하물며 社會主義의 政治制度에서는 더욱 더 그러해야 할 것이다」(人民日報, 1980年9月19日字, 李洪林

論文)라는 立場을 지켜온 터이라 招請을 하기까지는 時間을 必要로 했던 것 같다.

金正日로서도 처음 外國訪問이 「秘密旅行」이라해서 개운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中共側으로부터는 「中共과 朝鮮 勞動黨과의 關係, 中·朝 兩國關係와 兩國의 友好를 보다 發展시키기 위하여 重要한 貢獻을 하였다」는 評價를 받았다.

5. 1982年 以後의 中共·韓國關係

가. 積極攻勢의 韓國

中共과 한국과의 사이에 特히 交流가 增大되었다던가, 關係가 改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982년에 들어와서 한국은 政治, 經濟, 文化 등 모든 분야에서 對中共 接近努力을 傾注하였고, 그 成果와는 별도로 韓國의 태도가 주목을 끌었다.

1982年 3月 8日 盧信永 外務部長官은 國會 外務委員會에서 「1988年의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中共, 蘇聯 등 共產圈과의 關係改善을 圖謀하고 아울러 古巴 등 非同盟國 10個國과의 外交關係를 맺기 위한 交渉을 進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意欲은 강한 것으로 丁來赫 國會議長은 5月 12日 한국을 訪問한 田川誠一 日·中議員聯盟 副會長에게 「中共의 要人들과 만나는 機會가 있

거든, 잘 좀 傳해 달라」고 要請하고 있다.

韓國政府가 6月23日 中·蘇 등 18個國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한다고 發表한 것도 共產圈 貿易의 擴大를 前提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中共이 金日成의 中共訪問(1982年9月)을 앞두고 對韓間接貿易을 禁止한 것은 上述한 대로이다.

文化面에서는 李振義 文公部長官이 10月18日 第3回 世界博物館協議會 아세아地域總會(서울)에서의 人事로 北韓, 中共을 包含한 內外的 學者에 의한 新安앞바다 沈沒船의 共同研究를 提唱하였다.

1983년에 들어와 南北韓의 交叉承認案이 서울 매스컴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이 案은 韓半島問題 解決의 暫定的 措置로써 1975年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提案한 것인데, 西方側의 日本·美國이 北韓을 承認하는 대신에 中共·蘇聯도 한국을 承認함으로써 韓半島의 平和를 維持하겠다는 構想이다.

이 案은 北韓의 反對로 挫折되다시피 되어 있었는데 年初에 술츠 美國務長官이 日本·中共·한국 등을 巡訪하여 다시 學論되었으며 우선 먼저 日本이 北韓을 承認함과 동시에 中共이 한국을 承認하는 새 方式이 摸索되고 있는 것으로 報道되었다.(每日新聞, 2月4日字)

그러나 中共을 訪問한 후 한국에 온 술츠長官은 2月8

日 「交叉承認은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이다. 中共에서 韓半島問題는 學論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中共의 對應이 冷淡했었다는 것을 示唆하였다.

그러나 韓國側은 斷念하지 않고 李範錫 外務部長官이 5月 16日의 國會 外務委에서 「나 個人으로서는 빠른 時期에 中共과 國交를 맺는 것을 目標로 하여 努力하고 싶다」고 表明했으며 6月 29日 國防大學院에서의 講演을 통하여 「韓國外交의 最大課題는 蘇聯, 中共 등 나라와의 國交 正常化를 圖謀하는 北方政策의 實施에 있다」는 생각을 비쳤다.

1986年의 아세아競技大會, 1988年의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삼으려는 積極外交의 主張이었다.

그리고 韓國外務部가 1983年 4月 26日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1980年以後 中共을 訪問한 韓國人의 親戚訪問, 國際競技 參加등이 23名, 中共人의 韓國訪問은 會議參加를 위해 1981年에 8名, 1982年에 3名으로 되어 있다.

나. 守勢의 中共

한편 中共의 對韓姿勢는 매우 消極的이며 交流도 非政治的 分野에 限定되었다. 그 하나가 中共僑胞의 母國訪問 許容이었다.

中共 黑龍江省에 살고 있는 安壽龍(61)氏 夫妻는 中共政府 發行의 旅券으로 香港을 經由 1982年 4月 22日 한국

에 귀국하여 親兄宅에 머물게 되었고,(中央日報, 7月 21日 字) 1983年 3月에는 吉林省의 金玉順氏(63)가 43年만에, 또 5月에는 大連市에 살고 있는 林炳豪氏(82)가 42年만에 各各 母國의 땅을 밟았다.

中共 東北地區에는 168萬名의 韓國人이 居住하고 있다. (中國百科年鑑, 1981年版) 그러므로 中共政府로서는 人道的 見地에서 앞으로는 母國訪問을 認定할 方針(讀賣新聞, 6月 10日)이라고 한다.

1983年 3月 1日 밤 韓國의 TV放送에서 처음으로 中共의 TV 뉴스가 放映되었다. 아세아 太平洋放送聯合會(ABU)에 의한 뉴스交換의 試驗放映이지만 서울의 各新聞은 「40年만에 벗겨진 情報의 壁」이라고 大大的으로 報道하였다.

日本과 關係되는 움직임으로서는 日本, 韓國, 中共의 3國이 1983年 11月 14日 싱가포르에서 開催된 國際民間航空機構(ICA0) 第2回 아세아太平洋地域 航空會議에서 成田~北京間의 民間航空路線을 直線化하여, 韓國의 大邱飛行 情報區域(FIR)을 通過할 수 있게 하는데 合意하고 諒解文書에 署名한 일이다.

日本·中共 兩國民間機의 韓半島上空 通過에 관하여 ICA0가 1980年 12月 南方回航은 成田~서울~北京, 北方回航은 北京~平壤~成田로 하는 두 直航路를 同時 開設하는 案을 提示하여 關係國의 意向을 打診하고, 1982年 3月

까지에 原則的인 承諾을 받았다. 現在 技術的인 面에 대한 論議가 進行中에 있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成田 ~ 北京路 線의 直線化가 實施를 보게 된 것이다.

다. 中共民航機의 拉致

1982年 10月 16日 中共의 미그 19 戰鬥機가 서울의 金浦空 港에 가까운 韓國軍 基地에 着陸하였다. 操縱士는 空軍飛行 士 吳榮根(25)인데 「統制된 共產主義體制에 실증이 나서 前부터 亡命의 機會를 노려 왔었다」고 陳述했기 때문에 本人의 意思와 國際慣例에 따라 同月 31日 自由中國으로 移 送되었다.

中共은 事件直後 「訓練機가 行方不明 되었다」고 報道했 을 뿐 韓國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3年 5月의 中共民航機 拉致事件에서는 한국과의 直接交涉으로 事 態收拾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同年 5月 5日 上午에 瀋陽空港을 離陸한 中共民航機 트 라이덴트旅客機가 武裝한 6人組에 의해 拉致되어 韓國領空 에 들어선 다음 韓國空軍機에 誘導되어 駐韓美軍과 韓國空 軍 共用의 春川基地에 着陸하였다. 副操縱士 등 2名은 機 內에서 負傷당했고, 105名의 乘客과 乘務員들이 事件에 말려 들었다. 犯人은 遼東省 機械電氣設備公司의 自動車 配分係의 卓長仁 등인데 이들은 自由中國에의 亡命을 希望하였다.

中共은 事件 發生後 異例的으로 迅速하게 拉致를 公表함과 同時에 旅客機 및 乘務員과 中共人 乘客의 送還 그리고 犯人들의 中共側에의 引渡등을 要請하면서 交渉을 위하여 沈圖 中國民用航空局長 등 一行을 派遣하겠다고 發表하였다. 韓國은 同 局長一行의 入國에 應하였다. 韓國은 현재까지 自由中國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지만 機會있을 때마다 中共과의 交流強化를 摸索해 오던 터인지라 拉致事件을 對中共 關係改善의 好機로 捕捉한 것 같았다.

그래서 乘客과 乘務員을 정중히 待遇하였다.

이에 대하여 中共이 交渉을 서두른 것은 ① 犯人の 臺灣亡命을 阻止해야 한다, ② 乘務員과 乘客中에서 새로운 亡命者가 또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③ 乘務員과 乘客이 한국에 長期間 抑留하는 것을 回避한다 등의 理由 때문인 것 같았으며 5月31日의 韓國聯合通信은 「乘客中에는 中共航空工業學院의 王安 副院長 등 40名의 宇宙科學研究家와 技術者가 있으며 宇宙船發射計劃에 관한 極秘文書를 所持하고 있었다」는 消息通의 談話를 전하고 있었다.

어쨌든 交渉을 어디까지나 同 事件에만 局限시키려고 한 것은 中共이 그후의 對韓姿勢를 絶對 柔軟化시키지 않고 5月20日부터 山東省에서 열린 UN 아세아·太平洋 經濟社會委員會(ESCAP) 地質共同探查調整委의 세미나에 韓國代表의 入國을 拒否하고 있는(每日新聞, 7月12日 夕刊) 것

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7일에 서울에到着한 沈圖局長은 韓國側의 孔魯明 外務部次官補 등 官吏들과의 會談에서 妥結을 서둘러 ① 乘務員과 乘客 및 機體는 早期에 送還한다. ② 負傷者는 中國側의 希望에 따라 別途 送還한다. ③ 犯人 6名은 韓國이 國際協約과 國際慣例에 따라 裁判權을 行使한다. ④ 雙方은 合意內容을 文書로써 交換한다 - 는 것에 妥結을 보고 10일에 그 覺書에 各各 署名하였다.

妥結의 段階에서 問題가 되었던 것은 正式國名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政府代表의 資格으로 署名할 것인가 등이었다. 결국 前項의 경우 中共이 양보하여 英文으로 表現했지만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을 使用하고, 後者의 경우 韓國이 妥協하여 「政府를 代表하여」의 語句를 省略하고 「中華人民共和國民用航空局長, 沈圖」로 表現하기로 落着되었다.

沈圖局長 등 一行 106名은 10日 金浦空港을 離陸하여 上海를 經由, 北京으로 떠났다. 트라이덴트旅客機는 負傷者를 태우고 18일에 歸國하였다.

犯人 6名의 裁判은 7月18日부터 始作되었다.

이 對話에 있어서 中共은 北韓에 대한 配慮가 必要했을 것이며 韓國은 自由中國의 立場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國交가 없는 中共과 韓國 兩國이 第3

者의 調停도 없이 처음으로 直接交渉을 하였으며 그것도 迅速解決에 成功했다는 것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周邊諸國으로부터 評價받았다.